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임무

2009.11

www.airforce.mil.kr Vol.377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 1

서울 ADEX 2009 & 창군 60주년
기념행사

기획특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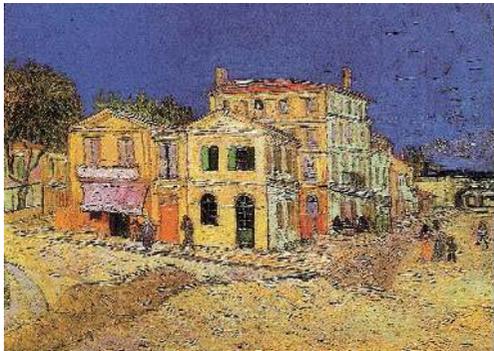
Black Eagles Returns!!!

저탄소 녹색성장 기고문

항공작전과 온실가스

발간등록번호

38-1800006-000001-08



표지설명 : 하늘로 비상하는 T-50 그리고 블랙이글스

표지사진 : 도쿠나가 | 사진작가
뒤 표지 : 소위 손창진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공군 November 2009 No.377

발행일자 | 2009년 11월 4일(통권 제377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CONTENTS

2009.11

www.airforce.mil.kr Vol.377

- 04 예비역 제언 _ 항공우주군 육성에 ALL-IN을
- 06 기획특집 1 _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9
 - _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 거행
 - _ 창군 60주년 행사 이모저모
 - _ 국민조종사, 하늘을 날다
- 12 기획특집 2 _ Black Eagles Returns!!!
- 17 PREVIEW _ 11월의 문화행사
- 18 창군 60주년 특집 10 _ 11월의 공군역사
 - _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⑩
- 22 참모총장 스케치
- 24 저탄소 녹색성장 기고문 _ 항공작전과 온실가스
- 28 e-Sports, <ACE> _ 개막전 시청률 1위, 공군에이스의 인기를 말하다
- 31 책마을 _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 32 Beauty 바이러스 _ 굿바이! 아토피~
- 34 이등병이 쓴다! _ 인생의 전환점에서 맞이한 GENIE
- 36 World-Wide Vision _ 음속 과학(Sonic Science)
- 40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차(茶)의 종류에 따른 다기 선택
- 42 정홍래의 음악산책 _ 불안한 매혹의 나라 체코와 드보르작
- 44 박희숙의 Behind the Canvas _ 사랑을 꿈꾸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 48 Bird Alert! _ 숲의 지배자 황조롱이
- 52 생각하는 그림 _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 54 창공 글터 _ 가을 억새밭에서 詩를 읊다
- 56 Letters to the Editor _ 2009년 9월호를 읽고서

항공우주군 육성에 ALL-IN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그 위용을 과시하고 앞으로 60년 항공우주군으로의 비상을 다짐하는 활기찬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제는 공군력이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는 핵심전력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기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항공우주군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로 발사된 나로호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과학적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항공우주전력화를 향한 염원과 꿈에 부풀어 온 공군인들에게 그 기대와 감동은 남달랐다. 물론 나로호가 위성을 목표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주개발의 도전은 실패를 딛고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로호 발사 준비과정에서 일부 분야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기술 축적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자체 개발한 원격 발사체 추적 시스템은 우주 선진국의 기술을

추월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낸 것이다. 또한 최근 군에서도 지상에서 우주물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우주감시체계가 최초로 우주전력으로 소요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실질적 준비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16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에서 국방부장관이 “오늘날 하늘과 우주는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며 한국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공조하면서 2015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비전을 갖는 노력을 전개 하겠다”고 밝힌 의지는 창군 60주년을 맞는 공군에게는 큰 희소식으로서 각별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이는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한 공군 현역과 예비역들의 지금까지의 각고의 노력이 가시화 되는 계기로 평가하고 싶다.

결프전 이후 이라크전까지, 최근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성을 이용한 표적정보 획득과 정찰 및 감시,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항법 및 정밀폭격지원, 통신위성을

이용한 광대역 통신 등 우주를 통한 군사작전 지원이 현대전의 전쟁수행과정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서 항공우주 전력은 미래 전장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북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핵심전력으로 위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우주전력체계화의 출발이 주변국에 비하여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은 1970년에 최초로 인공 위성발사에 성공하였고 2003년 세계 3번째로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으로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합류하였다. 또한 국무원과 국방과학기술원 산하에 국가항천국과 위성발사통제본부를 두어 위성사업을 운영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70년 세계에서 4번째로 최초의 인공위성을 정지궤도로 발사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탄 공격징후를 감시하기 위하여 EO(광학) 및 SAR(전천후 영상레이더) 정찰위성 4기를 운영 중에 있고, 최근에는 독자적인 조기경보위성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2008년 일본 의회는 우주기본법 수정을 통해 군사 우주개발을 가능하게 하였고 내각에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미 우주강국의 위치를 선점해오고 있는 미국의 NASA에서는 우주개발을, 전략사령부 산하에서는 핵 및 우주작전을 총괄하고 있고, 러시아는 민·군 공동으로 연방 우주청에서 우주개발을 주관함으로써 우주의 첨단기술을 미래전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걸프전, 이라크전의 교훈을 현대전에 반영하여 항공우주자산을 활용하여 실시간 작전속도가 요구되는 네트워크중심작전(NCW)을 개발하여 전쟁승리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 강국들이 경쟁적으로 우주의 군사적 활용 가치를 중시하여 전력화를 추진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와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확보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때이다. 이에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우주개발과 연계하여 국방우주력의 병행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국가 계획수립 시 군 계획을 포함한다든지, 민·군 협력 국책사업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면 저비용·고효율의 다중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운용 중이거나 향후 확보할 다목적 실용위성이나 무궁화 통신 위성에 대한 군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추천된다.

둘째, 국방의 현실적 재정여건, 국내·외 기술 발전추세 및 미래전 양상 등을 고려하여 우주전력을 단계적·점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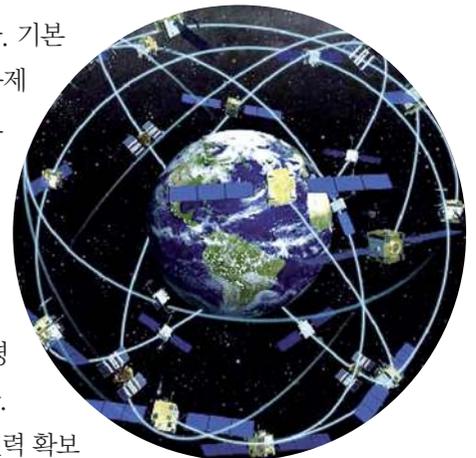
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감시센서, 지휘통제 및 요격체계 순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긴요 정도와 기술수준 등을 판단하여 조기 전력화가 가능한 전력들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독자적인 우주전력 확보

이전에는 미국의 정찰위성 등 동맹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주력 행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밀유도무기의 대부분이 미국의 GPS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감안 시 당분간 대미의존 탈피는 불가능해 보인다. 위성항법 체계나 조기경보위성 등 고액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우주 전력의 독자적 구축 및 운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우주전력 확보와 연계하여 관련 조직구조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공군에서만 우주업무 전담부서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우주관련 정책결정과 대외 협력 주관, 그리고 국방차원의 우주력 건설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우주전력 증강에 맞추어 부대구조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전과 미래전의 패러다임은 엄청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전승보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최초 위성 로켓 발사 계기와 최초의 우주전력인 우주감시체계의 군 소요 반영 결정 및 국방장관의 ‘항공우주 2015년 세계 10위권 진입 비전 제시’ 등의 추세를 몰아 우리의 소망인 항공우주군 육성에 ALL-IN하자. 



글 배양일

-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 (예) 공군 중장/前 작전사령부 사령관
- 駐로마교황청대사관 대사
-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9

원고정리 편집실 사진 ADEX 운영본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9(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Seoul ADEX 2009)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최첨단 항공기들이 전시되고 항공 및 방위산업의 기술을 한눈에 조명해 볼 수 있는 전시회로서, 1996년 이후 이번이 7회째를 맞았다. 26개국 271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고 30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77명의 세계 각국의 군 장성급 요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라는 특징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2007년 고별비행 후 잠정 해체된 블랙이글스의 귀환, 미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드의 특수비행, 세계 최대 민항기로 하늘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의 비행이 행사기간 중에 펼쳐졌다.

또한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거행되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2기 국민 조종사 6명을 선발하여 국산 T-50과 KA-1 항공기 비행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며, 행사장 내에는 공군 60주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시회가 열려,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기타 행사로는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세계 14개국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공군 참모총장 회의 그리고 항공우주 및 지상 무기체계 기술 개발을 위한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Seoul ADEX 2009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국산 방산장비의 해외 수출의 물꼬를 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2011년 제8회 행사를 기약한 채 마무리되었다. ㉠





공군 창군



주년 기념식 거행

원고정리 편집실 사진 상사 김경률,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공군은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아 10월 23일 오후 서울 ADEX 2009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성남 서울기지에서 기념식을 실시했다. 행사는 창군원로와 6·25 참전 조종사, 공군 예비역 전우, 6·25 해외참전용사, 지역 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 7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식전행사에서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 시범을 비롯해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으로 새롭게 단장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미국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드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다. 이어 F-15K, KF-16, KT-1, T-50, C-130 등 항공기 60대가 축하비행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6·25전쟁 출격 조종사와 예비역,
그리고 공군 장병 여러분!

온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창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 온 우리 공군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쉬 없이 조국의 하늘을 지켰고, 전역 후에도 나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군 전우회 예비역 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훈 공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하늘 수호의 최일선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공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사랑하는 공군 장병과 예비역 여러분!

우리 공군은 60년 전, 불과 1,600여 명의 병력과 20대의 항공기로 창설되었습니다. 창군 다음해 벌어진 6·25 전쟁을 맞아 참전 용사들은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맨손으로 폭탄을 투하하며 적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조종사들은 단 1주일의 훈련을 받은 후 무스탕 전투기를 몰고 현해탄을 넘어와 참전했고, 첫 출격부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인 F-15K와 국산훈련기인 T-50을 운영하는 최정예 공군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G-20 회원국에 어울리는 정예화된 선진 공군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믿음직한 공군 장병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안보환경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어떠한 위협과 도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는 강한 공군력 없이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래전장에서는 공군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미래의 공군은 지금보다 더 강한 공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우주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센터를 세우고 우리 땅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앞으로 항공우주분야 강국을 향한 도전은 더욱 힘차게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군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로 하늘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공군이 그 중심에 서서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군 장병 여러분!

오늘 공군이 새로운 60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과 우주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갑시다.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공군이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조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럽고 든든한 공군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우리 조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하늘을 무대로 더욱 열정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23.

대통령 이명박

창군 60주년 행사 이모저모

사진 상사 김경률,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10월 19일)



공군 참모총장 회의(10월 19일)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10월 21일)



공군 홍보관(10월 20일~25일)



역사사진 전시회(10월 21일~25일)

〈국민조종사 비행체험 수기〉

국민조종사, 하늘을 날다



✎ 황희연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밝았다. 다음 날 비행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상상과 설렘으로 밤잠을 설쳐서 몸은 약간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새털 같았다. 이 날 만큼 비행장에 들어서는 순간이 설레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비행장에 도착해서 조금 지나 환복을 했다. 벌써 항생훈련 때와 비행기 탑승 교육 이후 세 번째 입어보는 비행복이지만 입을 때마다 기분이 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환복 이후, 건강검진을 했고 드디어 블랙이글스 팀과 비행 전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만났다. 꼼꼼하게 비행 전에 체크할 사항을 논의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듬직하고 멋있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미리 맞춰놓은 장비를 착용하고 드디어 이륙장으로 가는 길. 너무 긴장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T-50에 탑승하여 앉아있는 순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항공기를 타보게 될 거라고는 정말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꿈을 꾸고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럴 때마다 헤드폰으로 들려오는 전방석 조종사님의 목소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뭐라고 하는 건가 알아들으려고 온 정신을 헤드폰으로 집중해서 들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는 사이 항공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세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이륙하는 방법으로 이륙했다. 몸이 뒤로 확 밀렸고, 이륙하는 순간의 힘이 느껴졌다. 거대한 비행장이 어느새 손바닥 안에 들어왔고, 성남 시내가 내 발아래 다 들어왔다. 시끌벅적하고 분주한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 비행 전 모든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현충원과 계룡대를 지나는 동안 전방석 조종사님께서 계속 내 상태를 체크해주셨고 이것저것 설명해주셨다. 교신하고 비행하느라 바쁘실 텐데 계속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했다. 세 대의 항공기가 정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기동을 하고 흩어졌다 다시 똑같은 간격으로 모였다. 얼마나 연습을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힘으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성능도 놀라웠지만, 블랙이글스의 정확한 조종능력에 감탄했다. 기동을 마치고 조종사님이 안전한 상태에서 조종을 해보라고 허락하셨고, 뻑뻑한 느낌이 들어 힘을 확 쫘다. 그러자 항공기가 급선회 되었다. ‘정말 민감하구나’ 항공전자공학 수업시간에 여러 번 들었던 fly-by-wire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몸소 실감하고 나니 너무 신이 났고 조종사님께 이것저것 여쭙보며 이론과 실제 항공기에서 쓰일 때와 비교를 할 수 있었다.

정말 이번 국민조종사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수많은 하늘을 동경하고 비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열정의 초라함을 느꼈고, ‘전투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시켜주면 할 수 있다.’는 거만했던 생각에 반성도 많이 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 줄 몰랐기에 죄송스러웠다. 별 볼일 없는 평범한 대학생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 공군, 항생훈련 때나 탑승교육을 받으면서 부렸던 쓸데없는 나의 오기를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받아들여 높이 생각해주신 담당자분들과 대한민국 최정예 블랙이글스 조종사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내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느낀 하늘에서의 세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



* T-50 탑승 허택기(기관사, 48세), 황희연(대학생, 23세), 윤동빈(대학생, 25세)
* KA-1 탑승 송영기(경찰관, 31세), 김민정(회사원, 33세), 계동혁(월간지 기자, 35세)



Black Eagles Returns!!!

정확히 2년 만이다. 지난 2007 서울 에어쇼를 끝으로 잠정 해체되었던 블랙이글스가 서울 ADEX (Aero 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에서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으로 기종을 갈아타고, 전 세계에서 초음속기로는 유일하게 8기 대형으로 대한민국 항공에 화려하게 귀환했다. 지난 1953년 사천비행장에서 F-51 Mustang 4대가 최초의 특수비행을 시작한 이래로 이번이 역대 6번째 팀이며, 지난 8월 제239특수비행대대가 창설되어 앞으로의 대외활동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이다. 화려하게 컴백한 블랙이글스의 중심에 서있는 이철희 중령(제239특수비행대 대장)을 만나 보았다.

원고정리 편집실 사진 김윤해, 도쿠나가 | 사진작가





Q 벌써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블랙이글스가 채장설되어 서울 ADEX 2009에서 그 모습을 선보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 지금껏 숨 가쁘게 달려온 블랙이글스의 행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지난 2년간 ‘블랙이글스’는 서울 ADEX 2009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기 위해 ①기종전환 ②특수비행자격 ③기동개발 ④부분훈련 ⑤전체훈련 등 5단계로 나누어 기량을 연마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 훈련을 마무리 지었다. 초음속기로서 추력이 좋고 비행성능이 우수한 T-50 항공기의 특성을 살려 아음속 항공기인 A-37로 운영할 때보다 더 역동적이고 웅장하며, 독창적인 면모를 살리고, 8기 편대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팀원들은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적인 특수비행팀인 미국의 썬더버즈·블루엔젤, 영국의 레드 애로우 등의 비행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탐구 등을 통해 비행안전과 예술성을 더하기 위해 심층 연구하였다.

Q 2007년에 운용되었던 A-37B를 비롯하여 공군의 대표 기종들이 블랙이글스를 거쳐 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이 블랙이글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T-50으로 곡예비행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A 한 나라의 특수비행팀은 그 나라의 공군력과 국방력, 궁극적으로 국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이 자국에서 생산된 T-50 비행기로 고난이도의 특수비행을 선보인다는 것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현주소와 창군 60주년을 맞이하는 공군의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Q 블랙이글스가 창공에서 선보이는 천상의 궤적들이 크게 High/Flat/Low Show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총 50여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ADEX 2009에서 선보이게 될 기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블랙이글스의 기동은 구름의 양과 높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HIGH SHOW는 정상 기상일 때, 즉 구름의 높이가 10,000FT 이상에 위치하여 기동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써, 블랙이글스는 모든 기동을 선보일 수 있다. LOW SHOW는 구름이 5,000FT 이상에 있을 때 실시하는 기동으로 수직 기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FLAT SHOW는 구름이 3,000FT 이상일 때 실시하는 것으로써 특수비행의 기동 연출이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주로 대형변경 위주의 특수비행만 실시한다. 물론, 3,000FT 이하에 구름이 위치했을 때는 특수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완성된 블랙이글스 T-50 8기 특수비행은 ‘웅장함’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8대의 항공기로 독수리를 표현하는 ‘이글 패스(Eagle Pass)’,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묘사하는 ‘다이아몬드 패스(Diamond Pass)’, 그리고 T-50 8대가 마치 한 대처럼 원형비행을 하는 ‘루프(Loop)’ 등이 ‘블랙이글스’의 웅장함을 대표하는 기동들이다.

그 외에도 ‘다운워드 뽐 버스트(Downward Bomb Burst, 6기)’, 정교함을 보여주는 ‘아파치 롤(Apache Roll, 2기)’, 스릴 넘치는 ‘칼립소 패스(Calypso Pass, 2기)’, 그리고 T-50의 우수한 기동성을 선보이는 ‘맥스 턴 앤드 루프(Max Turn & Loop, 1기)’ 등이 있다.

Black Eagles 주요 기동 소개



① Eagle Pass

8기 편대가 EAGLE 대형으로 비행한다. 이름 그대로 독수리를 묘사한 기동으로 8대의 항공기가 1대의 큰 전투기를 형상화한 블랙이글스의 대표 대형이다. 항공기 간 매우 협소한 간격을 유지하고 비행에 임해야 하므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② Diamond Pass

8대의 항공기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드는 기동으로 중앙에 위치한 4번기의 간격 조절과 움직임이 중요하다. 정밀한 간격 조절로 이루어진 마름모 모양의 편대는 관객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이 나오게 만든다.



③ Loop

8기가 정해진 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360도 수직원을 그리는 기동이다. 조종사는 조종석 내에서 중력의 4배(4G)의 압력을 받으며 1m 정도의 편대대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Downward Bomb Burst

6대의 항공기가 모두 수직으로 날아올라 강하 자세에서 각각 6방향으로 분리 비행하며 상공을 가로지른다. 강하 자세에서 1~2초라도 판단시점이 늦어지면 지면과 매우 근접하게 되는 만큼 조종사의 상황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⑤ Calypso Pass

항공기 2대가 실시하는 기동으로, 1대의 항공기는 정면으로 비행하지만, 다른 1대의 항공기는 바로 위에서 배면편대 비행을 실시한다. 항공기간의 간격이 매우 짧으므로 위험하고 이슬아슬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⑥ Max Turn & Loop

T-50 항공기의 최대 선회성능 및 최대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동으로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전투 조종사들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기동이다. 항공기의 최대 G-Force 하에서 기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도 360도 방향전환을 하며 원하는 비행제원을 유지하는 고난도 기동이다.



Q 공중에서 매우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곡예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이글스 팀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모토는 무엇입니까?

A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종간을 잡지만 모두가 모여 비로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특수비행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다. 그래서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팀원을 선발할 때 상위 30% 이상의 비행교육 성적과 기종별로 500~800시간의 비행시간 보유 등 기본 요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경력과 품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팀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는 전통이 이 때문에 탄생했다. 그리고 동료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은 계급을 떠나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Q 지난 4월 30일, 블랙이글스의 도장 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서울 ADEX 2009 행사기간 동안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모습이 내년 5월에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친 후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A 에어쇼 전용 T-50 항공기 10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팀원들은 같은 기종인 T-50 훈련기를 이용하여 특수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블랙이글스의 전용 항공기 외부디자인을 지난 4월 확정했으며, 확정된 디자인은 내년 5월부터 생산되는 특수비행전용 T-50 항공기에 그려질 예정이다. 이번 디자인은 독수리를 형상화하고 날렵한 곡선으로 블랙이글스의 역동성을 나타낸 강하고 진취적인 느낌을 준다. 내년 12월 블랙이글스의 전용 항공기를 도입하면 대국민 행사 및 공군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제239특수비행대대 대대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블랙이글스가 공군의 명예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특수비행을 선보일 것이다.

10월 21일, 블랙이글스의 초청으로 서울 ADEX 2009에 참여한 미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즈와 우정비행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안타깝게도 썬더버즈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우정비행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으나 이번 행사에 썬더버즈가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의 현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특수비행을 통해 블랙이글스는 화려한 천상의 궤적을 그려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창공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 ⁴¹



썬더버즈(Thunderbirds)팀은?

썬더버즈(인디언 전설에 나오는 전설의 새에서 따온 이름)는 1953년 미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루크 공군 기지에서 창설된 미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현재는 네바다 주 벨리스 공군 기지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썬더버즈는 F-16 기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에어쇼를 선보이고 있다. 썬더버즈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2004년 이후 5년만이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꽃보다 아름다운 봉태규, 왜? 웃기니까!
연극 앵콜 <웃음의 대학>

만약 이 세상에 웃음이 사라진다면? 웃음을 삭제해야 하는 검열관과 웃음을 사수하는 작가의 일주일을 무대 위에 올렸다. 검열관 역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금잔디의 아빠 역으로 나온 안석환이, 작가 역은 봉태규 등이 맡았다. 스타 캐스팅이 유행인 뮤지컬보다 더 알찬 캐스팅이다.

때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깊은 슬픔으로 얼룩진 전쟁의 시대에 웃음을 사수하려는 극단이다. 연극의 제목 '웃음의 대학'은 바로 이 극단의 이름이다. 극단의 작가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관객들에게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 검열을 신청한다. 검열관은 전쟁의 시대에 희극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본에서 웃음이 등장하는 장면은 모두 삭제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대본은 오히려 더 재미있어진다.

주인공 '초바키 하지메'는 35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일본의 실존 인물이다. 연극은 작가 초바키가 군대 징집 소식을 검열관에게 알리며 마지막 경례를 하는 장면에서 막을 내린다. 이 장면에서 검열관과 작가는 진심어린 교감을 나눈다.

그렇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웃음의 힘'이란 무엇일까. 웃음은 뜨겁게 타인을 선동하거나 이끌지 않는다. 그러나 굳어버린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이 영혼의 변화를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을, 대학로의 떨어지는 낙엽을 밟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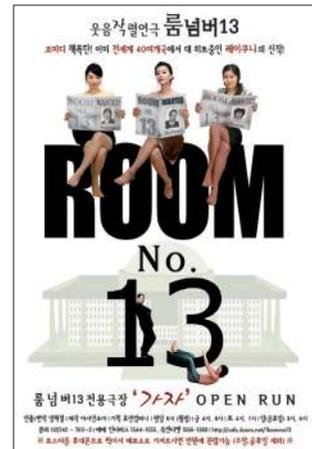
- 기간** 2010년 1월 31일까지
- 장소** 서울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1관
- 가격** R석 4만 / S석 3만 / A석 2만 5천원
- 문의** (02) 766 - 6007

사랑 + 감동 + 정치풍자!
웃음작렬연극 <룸넘버 13>

오래 전부터, 대학로의 '웃음 가득한 연극' 하면 많은 사람들은 '라이어 시리즈'를 꼽았다. 사실, 연극 '라이어 1, 2, 3'은 정말 웃긴다. 수많은 배우들이 이 무대를 거쳐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고 있으며 무대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탄탄해지고 있다. '룸넘버 13'은 바로 이 '라이어'의 초연 연출가 양혁철이 맡았다. 대본은 라이어를 쓴 레이쿠니가 썼다. 라이어 초연 연출가와 작가의 만남. 이 연극은 한없이 우울한 날 혼자 봐도 괜찮은 작품이다.

주인공은 여당국회의원 리처드와 야당총재비서 제인이다. 이 둘이 짝은 애정표현을 하는 순간 난데없이 시체가 발견된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야당총재비서와 함께 있는 여당국회의원이 신고할 리 없다. 설상가상으로 리처드의 부인과 제인의 다혈질 남편까지 호텔에 나타난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상황은 자꾸 꼬여만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객이 할 준비는 단 한 가지. 원없이 웃을 준비만 하면 된다.

우리 세상이 그렇다. 곳곳에 거짓말이 숨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폭소를 터트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극 속의 계속되는 거짓말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오해가 풀리는 과정에서 '쿨하게'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남자의 계절, 외로움의 계절, 고독의 계절 가을. 올해는 대학로에서 맘껏 웃어보자.



- 기간** OPEN RUN
- 장소** 서울 룸넘버 전용극장 가자
- 가격** 전석 2만 5천원
- 문의** (02) 742 - 7611~2

11 월의

공군역사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11월 3일 •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 참가(1968)
- 11월 10일 • C-47 수송기 도입(1950)
- 11월 27일 • U-10B 항공기 도입(1969) → 1972년 8월 24일 퇴역
- 11월 28일 • 국내개발 기본훈련기(KT-1) “응비” 명명식(1995)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 참가

1968년 1월 21일 이른바 1·21 사태를 도발한 북한은 1968년 10월 30일 울진·삼척지구에 124군 부대원 120명을 침투시켰다. 우리 공군은 태백작전으로 명명한 소탕작전에서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접항공작전, 병력(3,975명) 및 화물공수(50,920LBS), 조명탄 투하 등 559소트의 항공작전을 실시하여 무장공비 소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공군의 UH-1H 헬기들은 특전사 요원들을 태우고 기동성 있게 공중강습을 실시해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응집력을 와해시켜 조직적인 저항을 분쇄함으로써 소탕작전의 성공적인 완수를 가능케 한 핵심주역이 되었다. 이날 우리 공군의 활약상은 생포된 무장공비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생생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 공군의 UH-1헬기로 작전지역에 투입된 육군병력과 작전지역 이동을 위해 C-47 수송기에 탑승하는 육군장병들의 모습

“남한이 얼추 빨개져 너희들이 내려가기만 하면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중으로부터 불벼락을 받아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C-47 수송기 도입

C-47 1950년 11월 10일 대통령 전용기인 C-47 수송기를 평양 미림기지에서 인수할 당시 사진



U-10B 항공기 도입

Helio社의 U-10A를 Base로 하여 개발한 U-10B 항공기는 기본임무 부호인 Utility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전천 후 항공기로서 “Super Courier”(최고의 스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월 남전을 통하여 대간첩작전, 심리전, 계릴라전 등 비정규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였다. 우리 공군은 U-10B 항공기를 대간첩장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1969년 11월 27일 군원으로 도입하였으며 총 12대를 들여와 VIP공수, 연락업무, 글라이더 견인 등의 임무에 사용하였고 1972년 8월에 퇴역시켰다.



최대속도	164KTS	항속거리	590N/M	순항속도	135KTS	전투행동 반 경	200N/M
승 무 원	2명	승 객	6명	화물적재	1,500LBS	추 력	295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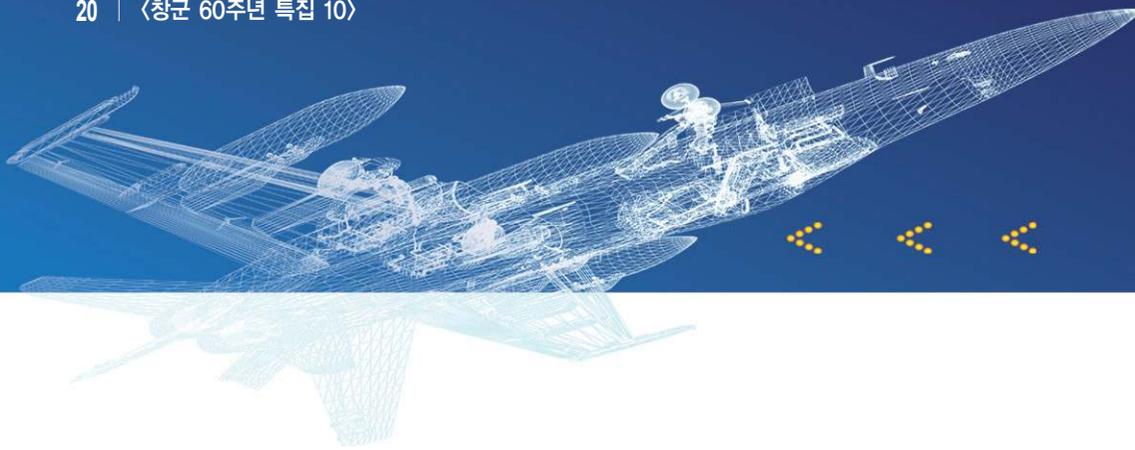
국내개발 기본훈련기(KT-1) “웅비” 명명식

국내기술로 10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1991년 12월 12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기본훈련기 KT-1에 대한 명명식이 1995년 11월 28일 제15혼성비행단 주기장(서울기지)에서 거행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KT-1 명명식에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라”는 의미로 “웅비(雄飛)”라 이름하고 친필휘호를 하사하였다.

이 명명식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가 하나 있다. 당시 우리 공군의 52시험평가전대 소속 조종사들은 명명식을 사흘 앞둔 토요일, 01, 02, 03호기 3대로 시범비행 준비를 위해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Cuban-8(8자 기동) 중이던 01호기가 배면에 접어든 순간 사출좌석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전방석 조종사가 비상사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종불능 상태에 빠진 후방석 조종사도 이슬이슬하게 비상사출한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귀중한 조종사의 생명은 구했지만 명명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KT-1 사업은 자칫 그간의 힘든 여정을 허무하게 마쳐야 할지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기체결함이나 사출좌석 제작사의 결함으로 밝혀져 현재는 우리 공군의 정예 조종사 양성의 산파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8월에는 터키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항공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 우주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



KT-1 기본훈련기에 대한 웅비 명명식이 1995년 11월 28일 제15혼성비행단에서 거행되었다.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10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U-9C (공중 지휘기)



공군사관학교에 전시되어 있는 U-9C

에어로 커맨더(Aero Commander)라는 별명을 가진 본 항공기는 민수용 Aero Commander 500 수송기의 군용기 버전으로 1954년 3월 24일 주한 미 공군으로부터 인수한 다목적 쌍발 수송기입니다.

1952년 미 육군의 연락 및 일반용 항공기로 제작되었으며 1955년 미 공군은 요인 수송 및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였습니다.

U-9C 수송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연락임무 및 요인 수송 등의 각종 항공작전을 수행했으며 L-26이라고도 불렸고, 이승만 대통령의 전용기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C-130H 수송기 인수

미국이 1937년부터 운용해 오던 C-47 수송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1950년대 초반에 설계된 Lockheed 사의 C-130 Hercules 수송기는 2차대전 이후 개발된 서방의 군용수송기 중 가장 성공적인 항공기로서 1954년 8월 최초비행을 하였고, 1956년에 인수가 시작된 후 급속도로 미 공군의 주력 전술 수송기가 되었다.

공군은 전시 공수지원전력의 부족소요를 보충하고 다양한 전술공수 능력의 신장, 장기취역 노후기종의 교체와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안보를 대비한 공중보급 능력의 증대를 위하여 총 2,000여억 원을



C-130H 수송기 인수식에서 관련 장병들의 기념촬영 모습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투자하여 C-130H 수송기를 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1988년 1월 9일, 최초도입분 1대를 인수하였다.

우리 공군의 C-130H 수송기는 길지 않은 운용 경험에도 불구하고 1991년 2월 걸프전에 파견되어, 국내운용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사막의 임시활주로와 이라크군이 방화한 유전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악조건하에서도 단 한건의 주요 결함 없이 다국적군 공수지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 O-1A (관측기)

미국 CESSNA사에서 개발한 모델 305의 출력을 높이고 좌석을 4개에서 2개로 줄여 관측 및 전방항공 통제용으로 개조한 항공기입니다.

1950년 처음 비행하였으며 6·25전쟁 중인 1951년 4월 한국에 도입되어 정찰비행과 작전연락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육군용은 L-19로 명명되었으며 1961년 까지 조종사 양성을 위한 초등비행 훈련용으로 사용되다가 O-1G 관측기가 배치됨에 따라 퇴역하였습니다.



1970년 12월 3일 공군사관생도들이 대전기지 제12비행교육대에서 O-1A 항공기 관속비행 훈련을 위해 교관으로부터 항공기 점검 및 공중조작 요령을 교육 받고 있다.

● O-2A (관측, 통제기 : Sky Master)



O-2A 항공기의 편대비행. O-2A 항공기는 미 공군 제19전술지원대로부터 인수하여 1974년 9월 9일 서울기지 제15전투비행단 주기장에서 O-2A 항공기 인수식을 거행하였다.

O-2A는 미국 CESSNA사에서 개발한 쌍발엔진의 Model-337을 군용으로 개조한 2개의 엔진이 전방과 후방에 각각 설치된 특이한 형태의 항공기입니다.

1974년 8월, 기존에 운용되던 O-1G 관측기의 후계 기종으로 도입된 O-2A 통제기는 공군이 보유한 본격적인 전선 통제기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74년 8월 15일 10대를 도입하여 공지합동 작전임무에 근접지원 및 전술통제기로 사용하여 왔으며 31년 2개월 동안 공군사상 최장 무사고 비행기록(11만 2,800여 시간)을 수립하였고 2006년 KO-1 저속통제기가 배치됨에 따라 그 임무를 넘겨 주고 퇴역하였습니다. 

Hot SKETCH



◎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

참모총장은 10월 23일 서울기지내 「서울 ADEX 2009」 행사장에서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대전은 공군력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군의 비전인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공군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함께하는 공군, 하나되는 강한 공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한국전 공군참전용사 초청행사

참모총장은 10월 22일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에 참전한 공군참전용사를 초청하여 공군회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용감하게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숭고했다”며, “참전용사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를 밑거름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국민조종사 임명장 수여

참모총장은 10월 21일 서울기지 「서울 ADEX 2009」 행사장에서 비행 체험을 마친 국민조종사들에게 '국민조종사 임명장'과 빨간 마후라를 수여한 후 공군 샬레에서 환담을 나눴다.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조종사로 선발되어 첫 비행을 한 만큼 자부심을 갖고 공군을 더욱 많이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조종사로서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어 주고, 공군을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군 참모총장 회의 주관

참모총장은 10월 19일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14명의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2009년 공군 참모총장 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오늘 우리 공군 참모총장들이 모여 선진 비행훈련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한 후 상호 협력 방안이 강구된다면 각국의 공군력 운용에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며, "미래 공군력 건설과 비행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주관

참모총장은 10월 19일 국방부장관, 외국 공군 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21세기는 항공우주시대로 하늘과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항공우주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가 상호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공작전과 온실가스

☞ 중령 김진철 | 전투발전단 군수체계발전처 소요분석과장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온도는 지구 평균인 0.74℃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온도가 약 2℃ 정도 상승하게 되면 동식물의 20%가 멸종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소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일반사회 뿐만 아니라 공군내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항공작전분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겠다.

항공분야의 탄소가스 배출실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배출하는 탄소량은 약 5억 540만톤¹⁾이며, 이중 산업부문에서 32%, 수송부문에서 20%,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13% 등을 배출하고 있다. 공군은 약 126만톤²⁾을 발생시켜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 수준이다.

항공유는 연소 가스의 71%

가 이산화탄소이며, 특히 고공에서 비행운을 형성하여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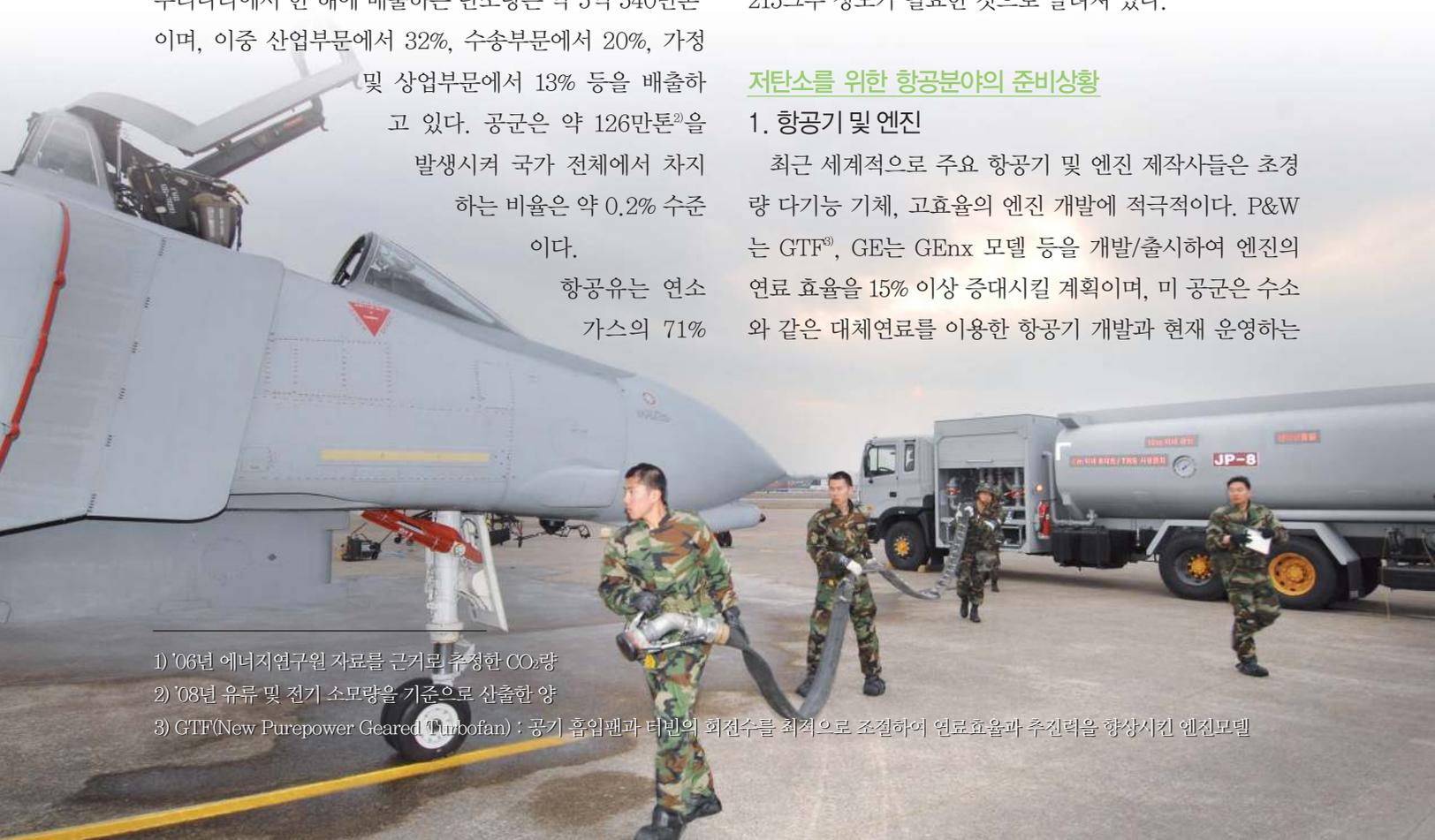
통상 항공유 1G/L은 9,093gCO₂를 발생시키며, 공군에서 운영하는 군용기들의 탄소배출량은 해당기종의 연료소모량과 비례한다. 따라서, 기종별 탄소배출량은 F-15K, F-4, C-130, F-16, T-50, F-5 순이 된다.

항공작전을 지상작동과 공중임무로 구분하여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엔진 시동 후 장비점검, 이착륙을 위한 이동 등의 지상작동시에 약 19%, 공중임무시에 81%의 탄소가 배출된다. 일례로 F-16급 전투기 1소터 운영시에는 지상작동시 1.2tonCO₂, 공중 임무시 6.9tonCO₂를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백합나무 215그루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탄소를 위한 항공분야의 준비상황

1. 항공기 및 엔진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들은 초경량 다기능 기체, 고효율의 엔진 개발에 적극적이다. P&W는 GTF³⁾, GE는 GEnx 모델 등을 개발/출시하여 엔진의 연료 효율을 15% 이상 증대시킬 계획이며, 미 공군은 수소와 같은 대체연료를 이용한 항공기 개발과 현재 운영하는



1) '06년 에너지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CO₂량

2) '08년 유류 및 전기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

3) GTF(New Purepower Geared Turbofan) : 공기 흡입팬과 터빈의 회전수를 최적으로 조절하여 연료효율과 추진력을 향상시킨 엔진모델

기종들에 대한 개조 등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재 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군용기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제시된 것이 없다. 다만, 무인기와 M&S⁴⁾ 체계 등을 개발/운영하여 항공기 운영요소를 대체/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2. 바이오 연료

석유수요 대체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을 위해 합성유, 식물성유, 에탄올/수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성유는 석탄, 가스, 동물성 기름 등에서 액화유류를 추출하는 것으로 현재 석탄합성유가 가장 진보된 상태이며, 미 공군은 전 군용기에 대한 석탄 합성유 사용 인증⁵⁾을 진행 중에 있다. 식물성유는 가장 유망한 대체연료로써 식량과 연관이 안되는 Camelina, Algae⁶⁾ 등의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여 향후 2~5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물성유는 '08년부터 민항사(뉴질랜드항공, 컨티넨탈 항공 등⁷⁾)에서 기존항공유와 5:5로 혼합하여 시험운행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항공기 배기가스의 71%가 온실효과 초래

3. 비행절차

민항사는 비용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연료 절감형 비행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륙시 최적연비를 고려하여 기존에 3,000ft까지 최대출력(Mil-Power)으로 상승하던 것을 800ft와 2,000ft 전후에서 2단계에 걸쳐 추력을 낮추었고, 착륙시에는 기존의 계단식 하강을 연속강하 접근 등으로 개선하여 연료소모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4. 기타사항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민항사의 운항경로 최적화, 항공기 중량 감소를 위한 탑재물 경량화, 적정 예비연료 산정, 엔진 물세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비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미 공군은 에너지 비전과 전략⁸⁾에서 항공유 시간당 소모율 10% 감소, 전 비행단계에 대한 연료 효율성 측정, 비행훈련 과목에 연료효율요소 반영 및 에너지 인식 교육과정 개설 등을 반영하여 유류절약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임무수행 적정연료량을 산정하여 잔여량을 줄여도 탄소배출 감소 가능

4) M&S(Modeling and Simulation) : 기존의 위게임 영역을 확대하여 기획단계의 소요결정, 획득, 평가는 물론 군의 교육훈련까지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도구 및 수단을 총칭한다.

5) B-52, B-1, C-17은 사용인증이 완료되었고, 현재 F-15, F-22 등은 진행 중으로 '11년까지 완료 예정

6)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다량의 유류채취가 가능한 식물로서 1년에 6모작도 가능하다고 함.

7) '08.12월 뉴질랜드항공, '09.1월 컨티넨탈과 일본항공이 혼합유를 사용한 시험비행에 성공

8) USAF Energy Program Policy Memorandum(06.6.16)

※ 친환경 무기체계, 저탄소 연료 도입에는 장시간이 소요
되므로 현시점에서는 연료절감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에 주력하여야 한다.

친환경 항공작전을 위한 유의사항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동차용 탄소저감장치, 바이오 디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가시적인 장비/조치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와 항공연료에 대해서는 저탄소 실현방안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작전 수행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유류절약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항공기 운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적정 연료량 주입

모든 민항기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본연료 이외에 예비연료를 탑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용기 또한 국지절차에 착륙을 위한 최소연료량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 종료 후 항공기내 잔유량을 점검해보면 과다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비록, 잔유량의 무게로 인한 추가적인 연료소모가 한 소터만을 계산한다면 작은 규모이나 공군 전체 비행 소터를 고려한다면 상당량이 될 것이다. 비행계획 수립시 임무형태와 공역에 따라 적정 연료량을 산출하여 비행 종료 후 잔여량을 최소화시켜야 하겠다.

지상 작동시간 단축

각 기지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항공기 이륙 전 통상 15~30분 전에 시동을 건 후 장비 작동상태 점검 및 안전조치를 최종 확인 후 이륙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상 작동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최대한 감축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상 작동시간을 1분 단축한다면 F-15급 항공기는 연간 약 5만G/L의 연료와 481톤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 신속한 장비 점검과 최단거리 이동을 통한 지상 작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임이 자명하다.

연료절감형 비행절차 수립/시행

민항사에서 연료절감형 비행절차를 운영하듯 군용기에 적

용 가능한 방안들, 계기접근 강화율 조정, 순항속도 유지를 위한 급조작 금지, 고도처리를 위한 적절한 파워사용 등의 아이디어들이 비행단으로부터 제안되었다. 항공작전 수행시 적용 가능한 대책들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행은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모든 절차는 심층적인 검토 후 저탄소형 비행절차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미래를 대비한 준비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항공작전분야는 군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본 등 정책부서에서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정책과 향후 온실가스 감축규모에 대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장비 및 연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장기 예산확보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선 비행단의 조종사들은 항공작전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연료량 급유, 지상 작동시간 단축 등 연료절약형 비행절차를 발굴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감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구현에 앞장서는 환경 친화적인 공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㉞



지상 작동시 탄소배출량이 평균 19% 차지

제1회 공군 전자전 발전 세미나 (ROKAF EW Development Seminar)

"자주적 공군력 구축을 위한 한국 공군 전자전 발전방향"

- 일 시 : 2009. 11. 26(목) 13:00 ~ 17:00
- 장 소 : 제 17전투비행단
- 주 최 : 공군작전사령부(전검실)
- 주 관 : 공군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개막전 시청률 1위, 공군에이스의 인기를 말하다

글 대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사진 제공 Fomos

공군에이스가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MBC게임과 붙었는데, 그 시청률이 동시간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지난 5월 입대 한 민찬기와 김성기가 처음으로 출전하기로 되어있는 경기였고, 이번 시즌 최초로 에이스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2로 석패한 명경기였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청률은 오로지 '공군에이스' 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공군에이스 창설 초기, 임요환을 비롯한 올드게이머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군에이스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우승자라도 한 두 시즌만 본선에서 멀어지면 금세 팬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이곳 스타판이다. 그런데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시즌 단 한차례 탈꼴찌에 성공했을 뿐, 그동안 실망스러운 경기도 많았고, 항



〈공군 vs MBC게임, 10월 12일 18:30〉

세 트	매 치 업	승 자	맵
1세트	민찬기(테란, 7시) v. 서경종(저그, 1시)	민찬기(공군)	매치포인트
2세트	박정석(토스, 9시) v. 고석현(저그, 5시)	고석현(MBC)	아웃사이드SE
3세트	김성기(테란, 7시) v. 이재호(테란, 1시)	이재호(MBC)	투혼
4세트	박태민(저그, 3시) v. 김재훈(토스, 9시)	박태민(공군)	단장의 능선
5세트	민찬기(테란, 5시) v. 염보성(테란, 7시)	염보성(MBC)	문글레이브
최 종 전 적		공 군 2 : 3 M B C (승)	

상 최악체로 불렸던 공군의 인기가 이렇게 지속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인정신을 보여주는 모습 때문’ 이라거나 가끔씩 연출되는 ‘감동의 명경기’ 때문, 혹은 ‘올드게이머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늘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군에이스의 인기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뉴욕 지성계의 여왕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지만 ‘뉴욕 지성계의 여왕’ 혹은 ‘대중문화의 퍼스트레이디’ 라고 불렸던 문화비평가 수전 손택이 남긴 명언이 있다. ‘감수성은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메시지보다 항상 앞선다.’ 이 말 속에 수전 손택의 핵심적인 예술론이 담겨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대상을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그녀의 대표적 저서의 제목에도 그러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갑자기 수전 손택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공군에이스가 가진 인기의 비결, 그것을 팬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선수들과 경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팬들은 공군

에이스의 올드들이 예전 소속팀에서는 출전기회도 얻지 못하고 애를 먹다가, 공군에 와서(아직까지 그 빈도수가 높지는 않았지만) 다시 예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감수성의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민찬기나 김성기 같이 어린 선수들이 공군에 들어와 대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스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 한다.

서지훈과 박태민은 군대에 오기 전 ‘절친’ 이었지만 입대 시기가 한 달 어긋나 후임과 선임으로 만났다. 김성기는 친정팀 CJ에서 박영민에게 많은 구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곧 박영민을 후임으로 맞게 된다. 공군에는 게임 이외에도 이런 ‘스토리’ 들이 있다. 2년 남짓한 기간이지만 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들의 조합이 공군에서는 이루어진다. 수전 손택은 스타일로서의 예술을 열렬히 옹호했는데, 공군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른 팀들이 절대로 연출할 수 없는) 고유한 스타일은 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

오스가 와일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진실성이 아닌 스타일’ 이라고 말했다. 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성적’ 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팀과 선수들이 보여주는 ‘스타일’, 연고지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야구팬들이 꾸준한 성적을 내는 SK나 삼성보다 비록 성적은 저조할지라도 시원시원한 야구를 하는 롯데나 화끈한 공격력의 한화를 더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스타일은 공군에이스가 내뿜는 아우라 그리고 팀원들이 연출하는 특유의 분위기, (홍진호가 김택용을 잡을 때 썼던) 3cm 드롭과 같은 고전 전략이 등장하는 경기내용 이런 것들이지





공군에이스의 옷이 멋있다 혹은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이 괜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공군에 잘생긴 선수들 많은데, 저런 옷에 저런 머리스타일로 묶어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긴 하다—)

수전 손택이 말했던 감수성 중 공군에이스에 적용해볼 만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캠프’라는 개념이다. 손택이 말하는 캠프의 본질은 고급문화의 엄숙함을 폐위하고, ‘부자연스러운 것, 인위적이고 과장된 것을 애호’하는 것이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풀어서 말하자면 캠프라는 것은 탐미주의의 한 양식이기도 하며, ‘내용을 희생해 스타일을 취하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도 하며, 때로는 ‘대중문화의 시대에 어떻게 멋쟁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이다. 그 때문에 어떤 동성애자는 캠프를 ‘게이 커뮤니티의 중추적 취향’이라고 설명하고, 필자와 같은 스텝은 ‘공군에이스가 군인의 신분으로 스타리그에 출전하고 또 홍진호가 콩댄스를 추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새로운 감수성이 바로 ‘캠프’인 것이다.

공군에이스는 어떤가. ‘군인팀’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군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과에 따라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하고, 업무도 해야 한다. 때로는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해 아마추어들과 친선경기도 해주어야 하고, 사인회도 해주어야 한다. 다른 팀들이 연습하고 있을 시간에 공군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 ‘성적’을 올리자면 그래서 안된다. ‘결과’만이 중요하다면 공군의 ‘팀컬러’를 접고, 다른 팀의 코칭스텝도 영입하고, 모든 훈련, 업무를 배제하고, 연습만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팬들이 공군에이스의 그런 모습을 원하는가? 이러

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공군에이스는 군인팀이다. 팬들은 공군에이스 선수들을 보며 경기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청년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공군에이스의 인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 순위 조금 올리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공군에이스의 ‘스타일’이다.

폼생폼사

흔히 ‘내용을 희생해 스타일을 취하는’ 것을 폼생폼사라고 말한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폼생폼사’하는 이들 치고,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잘 산다’고 보이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희망의 후에’에 나오는 ‘황 진사’ 같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나 마초적 기질을 가진 남자, 헛바람만 잔뜩 든 여자를 떠올리기가 쉽다. 자신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들이 보기엔 오히려 거북하거나 혹은 애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스포츠나 예술의 영역에서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폼생폼사’하지 않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리는 스포츠 선수, 예술가들은 ‘색깔’이 없다며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반면 누가 뭐라든 자신의 길을 가는 ‘만세타법’의 양준혁이나 ‘폭풍 스타일’의 홍진호 같은 선수들은 오래 기억되고 또 좋은 선수로 인정을 받는다. 팀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팀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그 길로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군에이스는 최약체 팀이라는 불명예스런 명칭을 듣는 대신,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라는 팀컬러를 지켜온 것이 시청률 1위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_ 공지영 지음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중학교 시절 한 선생님의 질문에 “좋은 아빠 될 겁니다.”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다가 꿀밤 얻어맞고 혼쫓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제 들은 듯 선명히 기억되는데 어느덧 저는 정말 열여덟 살 된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나 장군이 되겠다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꿈이라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찾아 온 아들놈의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아들을 찾아 동네 빌딩 옥상과 찜질방을 다 뒤지며 새벽을 맞고,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거렸던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폼질’과 ‘쌈질’로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왔던 저였지만 자식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백전백패였습니다. 저의 품질은 위기의 순간에 바닥을 보이는 인격으로 그 품질이 거품이었음이 드러났고 누구와 싸워서도 물러선 적이 없는 싸움실력 역시 자식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을 온몸으로 체득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아들에게만 매달려 지냈던 그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저는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두려움도 다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 자식을 향한 부모로서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자리를 찾은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그때 제 안에 충만했던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 마음이 생명의 모태인 우주가 이 땅의 생명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지구도 인류도 그 생명을 지탱해 낼 수 없었겠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주와 자연을 닮아가야 하는 성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문단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인 공지영이 사랑하는 딸에게 주는 편지글을 모은 산문집입니다. 성년으로 접어드는 딸에게 어머니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건네주는 삶의 해석들은 젊은이들에게는 유용한 조언이 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와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누구의 자식이고 또한 그 누구의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도 평생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우리는 결국 초보 자식 초보 부모로 한생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늘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쓴 공지영 역시 애뜻한 이 편지를 쓰게 되기까지 그녀의 딸 워녕이와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빨리 깨달았겠지요. 아마도 이 책의 제목(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은 그녀의 깨달음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들은 자식을 생각하며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서로에게 큰 배움을 주고받는 도반(道伴)의 관계임을 알려줍니다. 이 가을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우주적 메시지를 생각해보며 꼭 한번 읽어 보아야 할 책입니다. 



{ 아토피가 뭔가요? }

●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생후 2~3개월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발하기 쉬운 피부 질환이다. 이 아토피의 가장 큰 특징은 견디기 어려운 가려움증을 동반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제대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스트레스로 정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아토피(atopy)는 그리스어로 '이상한', '부적절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왔다. 아토피는 일차적으로 유전성 질환에 속해 양쪽 부모 모두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 한쪽만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자녀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게다가 이 증상은 무엇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지(겨울철

바깥의 추운 온도에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서구식 주거 형태(침대나 소파, 카펫 등), 각종 알러지성 음식물(우유, 달걀, 밀가루, 땅콩류)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 어떻게 치료하죠? }

● 아토피 증상은 동일한 환자에게서도 어떤 날은 아무 증상 없이 깨끗하다가 또 어떤 날은 피부염이 온 몸에 나타나는 등 심한 기복을 보인다. 이처럼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하므로 환자의 치료기간은 한정할 수 없다.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스테로이드제인데 피부염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품으로 먹는 스테로이드제와 바르는 스테로이

드제 연고로 나누어진다. 사용하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어 스테로이드제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물론 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 아래 적절히 사용한다면 스테로이드제만큼 훌륭한 치료 약품도 없다. 더불어 아래 8가지 주의사항을 준수해가며 치료를 받는다면 더욱 빨리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tip 8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실내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세요.
2. 주기적인 목욕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물이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3. 세정력이 강한 비누와 세제는 자극적이니 사용을 최소화해요.
4. 새로 산 옷은 반드시 빨아서 입고, 모직이나 화학섬유보다는 면으로 된 옷을 입어요.
5. 땀을 흘리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6. 가려워서 긁으면 더 가려워지므로 손톱을 짧게 자르고, 잘 때는 장갑을 끼고 잠 드세요.
7.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부염을 악화시키므로 정서적 안정을 취해요.
8. 알러지 유발 음식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각종 검사를 통해 피해야 할 음식을 체크하세요.

{ 화장품은 무엇을 사용하죠? }

●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미용 화장품을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무턱대고 사용할 경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세라마이드, 지방산, 습윤제, 글리세린 등과 같은 우수한 보습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혹은,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아토피 피부 전용의 보습제를 선택하거나 안전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해도 그 함유량이 미비하여 일반 미용 화장품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사전에 성분 함유량이나 판매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베이비 전용 화장품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는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Doctor's Q&A

부모 둘 다 아토피가 없는데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어요. 가족력이 없는데도 아토피가 생기나요?

물론입니다. 아토피는 유전 인자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의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모유에는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는데 특히 면역글로불린, 세포 표면 상동체, 당결합체, 올리고당류, 항산화제 등과 호르몬, 성장 인자와 같은 활성 인자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토피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간 요법이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국내 아토피 환자의 70%가 현재 민간요법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각종 민간요법 중에서도 특히 '한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이라 안전할 거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약제에도 간 독성 및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약재를 달인 탕약은 그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민간요법은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많으므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환자와 그 보호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의학 상식을 가져야만 아토피 피부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 다루어진 모든 내용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된 증명된 의학정보입니다.
도움말 및 자료출처 -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지음)



인생의 전환점에서 맞이한

GENIE

취재·원고정리 편집실 사진 상병 정 옥 | 제19비 정훈공보실



이병 김성욱 (677기)
제19비 정비전대



병장 박경륜 (661기)
제17비 정비전대



필승!!

5년간의 해외생활 중 큰 결심을 하고 자원입대할 여권, 군 입대를 앞둔 대학민부의 남아라면 그럴듯 낯선 환경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을 표현한 군 복무 기간인 2년 동안 겪게 될 새로운 일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단 막막함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복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의 자유분방함 속에서 지내다 단체생활의 표현인 군에 입대한다는 것에 대해 저보다 후위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는 염려가 더 많았으니 맏입니다. 자대배치를 받고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 어느덧 그러한 불안감들이 감소될 때쯤 그런 걱정을 했을 때를 생각하며 뭐 감사할 트리키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으실 사부님 막고참이신 박영관 병장님이십니다.

180° 달라진 환경, 찻집산장으로 살이든 업무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뿜을 때 알라딘의 'Genie' 처럼 똥~하고 제 옆에 나타나셔서 손쉬우며하여 업무처리과정에 대해 하나하나씩 업무에 미소를 잃지 않으며 가르쳐주실 때마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더 나아가 군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제 군생활의 첫 시작을 매끄럽게 해주신 셈이지요.

신병인 저에게 조바심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히 면에서 가르쳐주실 때마다 마음속 깊은 감사를 느끼고 싶었지만 차마 표현하지 못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대배치 후 홀로 감기몸살을 이겨내려고 복부 참고 있던 저에게 "왜 바보스럽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서 자기 일처럼 걱정스러워 하시며 사부님 청소는 자기가 할 테니 지금 바로 항공의부대대로 데려다 주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가슴속에 봄날 아침햇살이 표근하게 비추는 것 마냥 따뜻해졌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보람이 쫘합니다.

비록 나이는 저보다 적은시지만 후임을 아껴주고 생각해주시는 그런 면에서는 제 친형인듯 마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박영관 병장님께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비편제된 사부실에서 근무하시어서 제가 은 뒤 다시 얼마 안 있으면 원대부대를 하셔야 한다니 이 고마운 감정을 언제 다 감사드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전 행복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편지를 받으실 때쯤 제 옆에서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없으실 지도 모르지만 이 고마움만큼은 제각해서도 가슴속 깊이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군대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모술캠프의 'Genie' 처럼 절 이끌어 주셨던 박영관 병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p.s.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셔도 만사행통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마운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편지로 전하게 해서 송구합니다. 아~ 그리고 여자친구 분과도 이런 사랑의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 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음속 SONIC 과학 SCIENCE

전투기 테스트가 진행중인 에드워즈 공군기지 비행시험센터를 가다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글·사진 하사 Matthew McGovern

번역 중위 이준호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1947년 이전의 사람들은 초음속 돌파 달성 가능성 여부에 의문을 품곤 하였다. 이를 시도한 조종사들은 초음속 도달 과정에서 제어하기 힘든 흔들림과 대기압에 의한 항공기의 파손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의 희생과 항공기의 손실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1947년 10월 14일, 당시 대위였던 Chuck Yeager 예) 준장은 B-29 Superfortress 폭격기 개조 항공기의 폭탄투하실로부터 출격한 총알 형상의 Bell X-1 항공기를 조종,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20,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650마일 이상의 속도를 달성하며 초음속 돌파에 성공한다.

“X-1 항공기가 창공을 향해 솟아올랐고, B-29와 P-80 항공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멀어졌지요” Yeager 예) 준장이 Popular Mechanics 잡지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곧바로 2번과 4번 연소실에 불을 점화했고, 제가 몰던 항공기는 마치 작은 로켓과 같이 순식간에 6,000파운드의 추진력으로 연기를 내며 솟아올랐습니다. 속도가 0.82에서 0.92마하 사이를 오갈 때, 안전장치가 작동 중인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방향타와 승강타 전부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전장치만큼은 성공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0.95마하를 넘나들었는데도 말입니다. 35,000피트 상공에서 연소실 두 개를 차단하고 나머지 두 개만으로 계속해서 솟아올랐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 같았습니다. 항공기는 계기판이 0.965마하를 가리킬 때까지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계기판의 움직임이 멈추었고 곧이어 1.06마하를 가리키며 솟아올랐어요. 그 잠시 동안의 정적은 충격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속으로 18초 동안 비행했어요. 그 동안은 그 어떤 진동도, 흔들림도, 충격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행기가 충돌할 수 있는 장애물 하나 없었기에 결국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Yeager 예) 준장 당사자는 정작 인류 최초의 소닉붐 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몇 천 피트 아래에 위치하고 있던 에드워즈 공군기지 요원들은 그것을 생생히 들었다고 전한다. 62년이 지난 지금, 소닉붐은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전투기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군 요원 및 관련업체들이 매일같이 전투기 실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공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합니다. 즉,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함은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전투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으며 실험용 항공기 또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산적한 전투에 출격하는 전투기는 이곳 비행시험센터에서 시험을 거쳐 입증이 완료된 체계만을 갖추고 있지요.” 시설검사장이자 B-52 Stratofortress 시험항공사인 Dave Smith 중령이 말했다.

스미스 중령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B-52 업그레이드 작업에 참여 중이다. 최근 이루어진 주요 업그레이드 사항으로 B-52 항전 중기 향상 프로그램(AMI)을 통한 항전체계의 개조를 예로 들었다.

“비록 B-52는 낙후되었지만 힘이 좋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말과 탱크의 힘을 갖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내부와 오늘날의 합동전투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전체계의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본 AMI 개조를 통해 그러한 효과적 운영 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표적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무기는 치명적인 전투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아군의 구조물 혹은 아군 전력에 끼치는 피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공격이 불가능했던 표적들에 대한 공격 능력 또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최신 표적 능력은 현재 비행시험센터에서 시험을 거치고 있는 최신 표적 포드 때문에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B-52가 폭격할 수 있는 표적은 도시 자체 혹은 정제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탱크, 다리, 전방지원기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지 못했지요. 최신 소프트웨어와 항전, 그리고 표적 포드를 통해 50년 이상된 플랫폼을 이용, 합동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그레이드는 지속될 것이며 차후 20년 혹은 30년까지도 B-52를 지속 유지 및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52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시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그 어떤 물체보다도 빠르



제412항공기정비대대 소속 무기탑재원으로 근무 중인 Daphne Jaehn 병장(좌)이 F-22에 대한 탑재절차시험을, 오른쪽의 David VanCamp 하사는 그녀가 수행중인 절차를 평가 중이다.



비행시험센터는 구식 H-130항공기에 항전 현대화 프로그램을 적용, 위와 같이 시험 중에 있다. 최신식 조종석에는 이중 경보 디스플레이, 완전 자동화 및 디지털 유리가 장착된다.

게 날았던 X시리즈 항공기 관련 이야기책을 어린 시절 읽은 후부터 생각해왔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비행기에 관심이 많다면 수많은 종류의 항공기가 시험을 거치고 있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캔디 가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센터에서 최신 항전체계 개조를 거치고 있는 또 다른 항공기는 F-22 랩터이다. “최신 항전체계는 공대지 표적에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F-22 비행시험센터 요원인 Chad Calahan 하사가 말했다. “자그마한 직경 폭탄의 효용성을 높여주지요. 또한 작은 폭탄을 여럿 실은 채 비행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동체에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부수적인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Calahan 하사는 F-22 시험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말한다. 특히 휴대용 정비기(Portable Maintenance Aid)라고 불리는 최신 체계의 편리함 덕분에 F-22 체계 고장탐구 문제를 수월히 해결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본 항공기에 대해 수많은 고장탐구가 이루어졌고 주로 PMA를 사용하였습니다. 스스로 코드 분석을 통해 고장탐구를 진행합니다. 항공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이 PMA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부품이 고장났는지를 알려 주지요. 모든 기능이 하나의 장비로 통합되어 항공기와 연

동, 사용하게 됩니다.” Calahan 하사가 말했다.

Calahan 하사는 F-22 담당 전, 약 10년 동안 F-15 Eagle을 담당해왔으며 각 항전 특성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시험 요원장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F-22의 체계가 F-15의 그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압 구성품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엔진 교체 또한 F-15에 비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라고 Calahan 하사가 전했다.

항공기 작업은 훨씬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의 중요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시험 단계를 진행하면서 실제 전투에 사용될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치는 철저한 시험 없이는 조종사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시험 완료 후에야 실 전투에서 해당 전투기가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공군비행시험센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술, 취득, 시험, 유지, 출정 능력 등으로 전투기를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우리는 록히드, 보잉(계약업체), 그리고 여러 민간 기관과 협력, 각각의 기술을 취합하고 있어요.” Calahan 하사가 말했다.

민간 하청업체와 공군요원이 협력하여 F-22, B-2



Sean Hurst 병장이 F-22 랩터 공동통합프로세서의 모듈을 교체하고 있다.



B-52 Stratofortress 항공기가 최신 항전체계의 시험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새로운 체계는 B-52 항전 중기 향상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Spirit과 같은 최신 항공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B-52 및 C-130 Hercules와 같은 구형 항공기의 수명과 기능 연장에도 힘쓰고 있다.

시험센터의 C-130 항전 현대화 프로그램(AMP)을 통해 항공기의 수명을 약 30년 연장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플라이트덱에 두 개의 경보 디스플레이, 향상된 라디오 성능, 완전자동화 및 디지털 유리를 추가, 개조하고 있고 필요 요원의 수는 줄이고 있다. “C-130 AMP를 통해서 C-130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보 디스플레이를 통한 비행이 가능해져 조종사들은 주변 확인을 위해 굳이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만 응시하면 됩니다. 항공기 상 항해사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도 플라이트 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C-130 AMP 항공기는 개발 시험이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시험이 끝나는 즉시 전력화될 것입니다. 나머지 구식 C-130 모델 항공기 또한 추후에 AMP 프로그램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탑재물 관리 책임자 11명, 비행 기술자 3명, 그리고 붐 오퍼레이터 7명만이 기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수 관련 작업도 한창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공군 추후 40년의 운명을 결정하는 셈입니다.”라고 탑재물 관리 책임자이자 운영그룹 표준 및 평가 감독관인 Dan Halverstadt 중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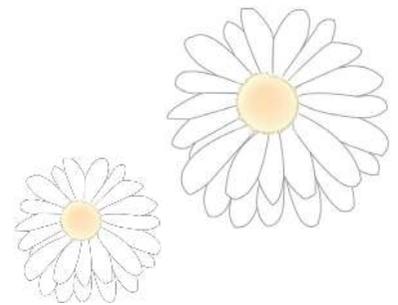
시험센터의 모든 요원이 제출하고 기록하는 항공기 시험 보고서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 공군의 미래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공군비행시험본부장인 David J. Eichhorn 소장은 그에게 부여된 과제의 무게를 마음 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공표한 대로 무기체계의 결과를 얻는 것이 에드워즈 공군기지 공군비행시험센터의 임무입니다” Eichhorn 소장이 말했다. “비행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들은 더욱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체계와의 연동이 그만큼 더욱 어려워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원 또한 무제한 제공되지 않지요. 우리 요원들이 사용하는 기계들 또한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똑똑한 구매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는 혁신적인 방안 없이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교한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시험환경 및 혁신적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에드워즈 공군은 그런 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라고 그는 말했다.

비행시험센터 요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기술 및 성과는 지금도 전투기 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본 공헌의 원천은 전투기에 대한 무수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와 소닉붐을 탄생시킨 기지 상공임을 확신한다. **AT**



소석도에(笑石陶藝) 손광수(孫光洙)作

차(茶)의 종류에 따른 다기 선택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1전투비행단

처음으로 차 생활에 입문했던 당시, 좋은 차를 구하여 마시기에 전념했을 뿐 지금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차 종류와 다기 선택에는 무지하였다. 오로지 차만 좋아하는 다랑(茶郎-차를 좋아하는 사내) 시절이었던 1990년 초 대구 지역 어느 차회(茶會)에 참석한 것이 인연이 되어 경남 합천 해인사 밑에 있는 강파도에 故김종희 선생이 만든 3인 다기 세트를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미국 등 세계 각 나라의 다기를 다양하게 수집하기에 이르렀다.

용기가 우리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된장, 간장, 김치 등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식품으로 기후와 환경에 맞게 변화된 발효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차 우릴 때 필수적인 다기는 고령토를 원료로 하여 1,300도의 높은 온도로 구워 조적이 치밀하고 기공이 적어 흡수력이 낮으며 열전도율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로 그 이유는 현재 한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가 불발효차(不發酵茶)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차를 분류할 때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효(發酵)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차가 발효되는 것은 찻잎의 폴리페놀 성분이 원형질에 들어 있는 산화 효소인 폴리페놀 옥시다아제에 의해 산화되어 황색을 띠는 데이플라빈과 적색을 나타내는 데아루비긴 성분으로 변하여 독특한 향미를 나타내는 작용이다.

이 발효의 정도에 따라 불발효차는 찻잎에 고온을 가하여 산화를 멈춘 것으로 녹색이 그대로 있어 영어로는 Green Tea, 일본에서는 녹차, 우리나라와 중국 고전에는 차라고 부른다. 발효차는 찻잎이 산화되어 완전히 검은 색으로 변하게 한 것으로 영어로는 Black Tea라 하며 우리는 우린 탕색이 붉어 홍차(紅茶)라 한다. 그리고 반발효차는 찻잎의 산화를 중간에 멈춘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대만의 오롱차이고, 후발효차는 1차 산화 후 서서히 산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중국 운남성의 보이차가 있다.

불발효차는 차의 쓴맛과 떫은맛을 나타내는 폴리페놀

성분이 산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며 이 폴리페놀, 즉 카테킨(Catechin) 성분은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나므로 쓴맛과 떫은맛이 적게 우려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끓인 물을 빨리 식는, 즉 열전도율이 높아 보온성이 낮은 자기(磁器)가 가장 적합하다. 그 외 발효차, 반발효차, 보이차는 산화된 카테킨을 충분히 우려내게 하기 위해서는 열전도율이 낮고 보온성이 좋은 사기(沙器), 즉 자사호(紫沙壺-중국 의흥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석을 풍화시켜 모래 성질이 많은 흙으로 숙성시켜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붉은 색이 나는 것)가 적당하다.

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운남성과 귀주성에 걸쳐 있는 운귀고원(云貴高原)이며, 열대, 온대, 아열대성 기후에서 재배하는 식물로 겨울철의 온도가 영하 15℃ 이하가 지속되면 동사하고 여름철에는 35℃ 이상이 계속되면 성장을 멈추며 40℃ 이상에서는 잎이 타는 엽소(葉燒) 현상이 생긴다.

국제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2007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차(茶) 생산량은 약 388만 톤이다. 나라별 통계를 살펴보면, 차의 나라로 알려진 중국은 총생산량이 118만 톤으로 전체에 30%, 17세기 이후 영국이 다원을 만들었던 인도가 24%, 그리고 스리랑카가 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80%가 발효시켜 만든 홍차(紅茶-Black Tea)이고 불발효차(不發酵茶)가 15%이며

나머지는 반발효(半發酵)시킨 오롱차와 후발효차(後發酵茶)인 보이차가 있다.

세계 차 생산량과 지역에 따라 차의 종류가 다른 것은 태양의 일조량, 즉 차나무의 탄소동화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활동은 위도가 1도씩 북으로 옮겨 갈 때마다 4일 정도 늦어지며, 동쪽으로 경도가 5도씩 옮겨 가는데 따라 3~5일 정도가 늦어지고, 고도가 100m 높아지는데 따라 3~4일 정도 늦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다기의 선택

가) 발효차

열전도율이 낮은, 즉 보온성이 높고, 차의 주성분인 카테킨과 접촉해 화학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도기를 종류의 원형으로 열대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차의 성분이 잘 우려나고 절수가 좋아야 하며 홍차용 백자(白磁) 다기에는 열 손실 방지를 위해 코지(Cozy-보온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오롱차와 보이차를 우려내는 다기

자사호를 사용한다(사진 ③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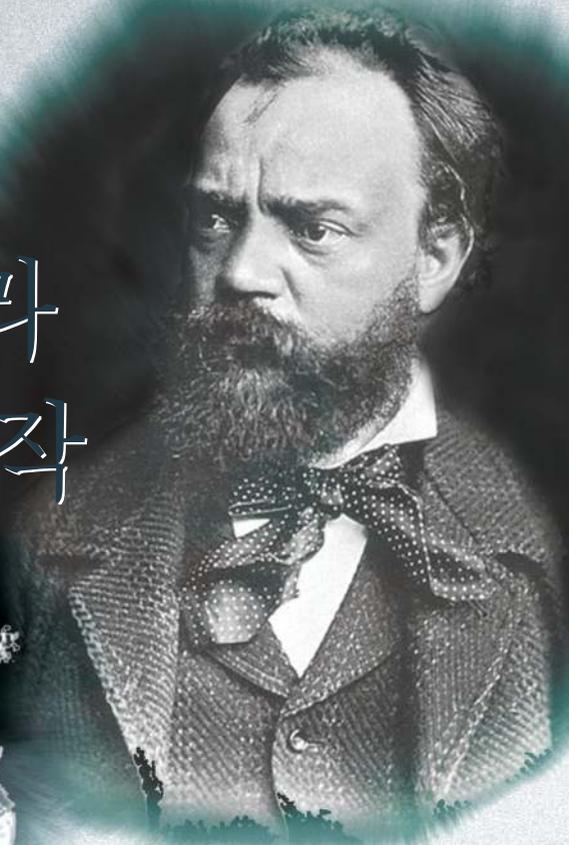
다) 불발효차

열전도율이 높은 자기(磁器)를 사용해야 한다. ㉞



- ① 백자(白磁)에 불발효차를 우려는 모습
- ② 다기에 코지(Cozy-보온 덮개) 사용한 모습
- ③ 자사호(紫沙壺, 자사호는 모래 성질의 흙이라 기공이 많으므로 열전도율이 낮고 자기(磁器)에 비해 두께가 아주 얇아도 보온성이 아주 강함)
- ④ 의제 허백련 선생께서 사용하신 다기로 다기 손잡이 변화를 알 수 있는 작품이며 우리나라는 주전자 문화로 보통 손잡이가 위에 있는 삼파형 다관(茶-차 다, 罐-두레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옆에 손잡이가 옆에 달려 있는 횡파형을 사용하고 중국은 후파형으로 손잡이가 물대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불안한 매혹의 나라 체코와 드보르작



☞ 정홍래 | KBS FM 「박종훈의 가정음악」 방송작가

일본의 작가 '우라사와 나오키'가 지은 만화 「몬스터」의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기억하는가. 스산한 어느 뒷골목에 위치한 '세 마리의 개구리'라는 집. 이곳에서 자란 쌍둥이 남매는 철저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져, 살인마가 되어야 하는 슬픈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 붉은 장미의 저택에 끌려가 참혹한 일을 경험하는 '안나'... 그리고 그 경험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요한'... 책장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한 충격을 주었던 만화 「몬스터」... 이 스릴감 넘치는 작품의 배경은 바로 체코의 어느 뒷골목이었던 것이다.

유럽 동쪽에 자리 잡은 나라, 체코... 스산한 분위기와 그 늘진 표정을 지닌 사람들... 「몬스터」에 질게 깔린 그 어둠이 바로 이곳 체코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코에는 불안감이 온 전제를 짓누르고 있어서 어느 작가는 체코를 '불안한 매혹'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유럽 배낭여행객 중에 우연히 프라하에 들러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의 풍경에 놀란다고 한다. 마치 숨겨진 보

석을 발견한 것처럼, 더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 바로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2005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기억하는가. 체코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 주인공은 프라하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서 인형놀이를 하면서 블타바 강 위를 지나는 카를교 위에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만남은 프라하의 매력과 함께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게 된다.

남녀 주인공이 이별했던 다리 카를교... 더없이 황홀한 야경을 지닌 이곳이야말로 관광객들이 놓칠 수 없는 프라하의 낭만이다. 보헤미안의 영혼을 지닌 거리의 악사들에게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양옆에 늘어선 동상에서 느껴지는 엄숙함... 것처럼 여러 생각을 하면서 다리를 걸어가다 보면, 프라하라는 도시는 자신이 지닌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카를교가 거의 끝날 무렵 만나게 되는 프라하 성의 웅장한 모습... 그 장엄한 아름다움과 마주하면 프라하라는 도시가 지닌 아름다움에 숙연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폐허로 만들었을 때에도

차마 이 도시 프라하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다.

그런가 하면 프라하 시내를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모습에서는 프라하 성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프라하 성이 장엄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면, 프라하의 작은 마을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풍경은 정겹기 그지없다. 크고 작은 돌로 낸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으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집과 정성들여 만든 정겨운 대문과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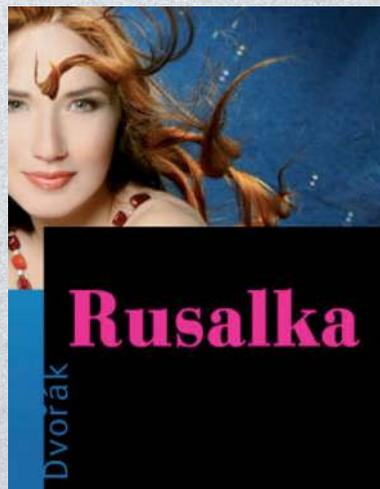
웅장함과 소박함, 불안함과 낭만적임... 이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모두 지닌 프라하...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도시, 그것이 바로 프라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다. 그런데 체코 사람들이 국민 작곡가로 꼽는 ‘드보르작’ (Antonín Dvořák, 1841~1904)의 음악에서도 그러한 매력이 느껴진다고 하면 과장일까. 아기가자하면서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음악, 우울하고 불안하면서도 한없이 서정적인 매력, 그런 체코의 모습이 바로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웅지 모를 친근함은 아마 그가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체코의 한 시골마을에서 자란 드보르작은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여인숙을 운영하시는 그의 아버지는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 바빴던 까닭에 자식의 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드보르작은 마을 악단을 따라다니며 음악을 배웠다. 자연과 벗하고 시골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스로 음악을 배운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음악은 세련됨보다는 정겨움이라는 느낌에 더 가까운 것이다.

드보르작의 음악이 그만의 독특함을 지닌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힘들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견뎌낸 드보르작은 시골 마을에서 배운 체코의 순수한 매력을 고스란히 음악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음악사에서 드보르작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다. 서구 유럽의 음악

들이 갖는 세련됨과 다르게, 그의 음악에서는 슬라브 민족의 우직스러움과 보헤미아의 자유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드보르작이 작곡한 음악 세 곡을 추천하고 싶다. 첫 번째는 「교향곡 7번 3악장」으로, 완숙기에 접어든 드보르작이 42세에 작곡했다. 이 음악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면서도 체코의 우울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매혹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드보르작의 서정적인 면이 잘 나타난 음악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Songs my Mother Taught me)’를 권하고 싶다. 딸 키우는 아버지가 된 드보르작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작곡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딸에게 노래해주는 이 음악은 특히 객지 생활이 외로울 때 고향생각을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달에게 부르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다. 체코판 인어공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루살카’는 아름다운 물의 요정이다. 그런데 어느 날 호수에 찾아온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 그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대가로 왕자를 만난다. 처음에는 왕자도 루살카를 좋아하지만, 이웃 공주의 방해로 루살카의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결국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한 루살카.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다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파괴한다는 체코판 인어공주 이야기, 작품의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이 오페라에 나오는 ‘달에게 부르는 노래’는 정말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이다. 왕자를 보고 반한 루살카가 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음악은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루살카 이야기도 이곳 체코의 매력과 맞닿아 있다. 날씨가 점점 스산해진다. 이번 겨울은 체코의 그 불안한 매혹에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A)





사랑을 꿈꾸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사랑 하나만으로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었지만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글 박희숙

작가, 서양화가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지음

사랑 하나만으로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었지만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비운의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고 있는 화가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했던 그의 소망은 여의치가 않았다. 고흐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에게 사랑은 무자비하리만치 인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흐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림만큼은 놓지 않았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삶의 슬한 상처로 얼룩져 있는 고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프랑스 남부 아를(Arles)에 있던 아틀리에 노란 집에서였다. 고흐는 고향 네덜란드를 떠나 파리에서 1년 6개월 동안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활동을 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고흐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고흐는 파리를 떠나 1888년 남프랑스의 아를에 도착한다. 그림을 그릴 꿈에 부풀은 고흐는 라마르틴 2번가에 노란 집으로 이사를 했다.

화실을 내고 작품 둘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노란 집에서 고흐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꾸었던 그는 동료 화가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이 아를에 올 수 있도록 동생에게 부탁했다. 고갱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흐는 노란 집을 꾸미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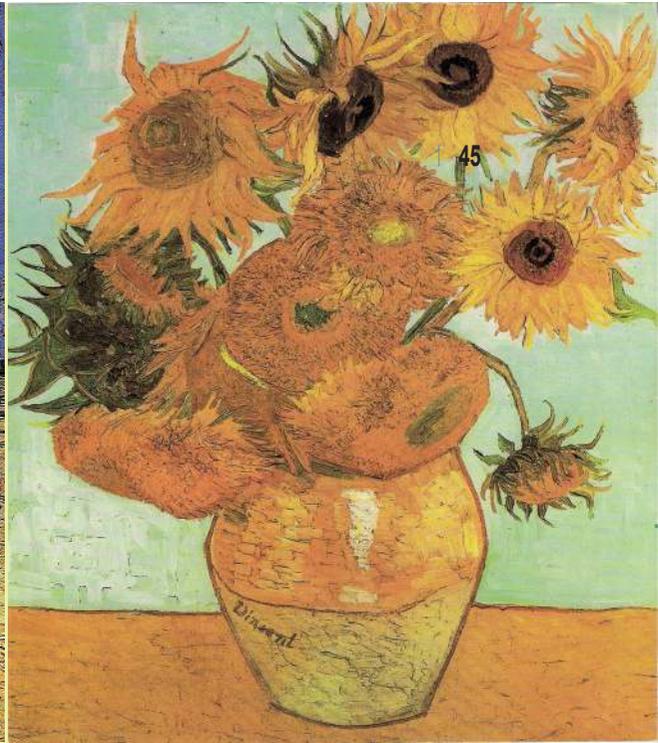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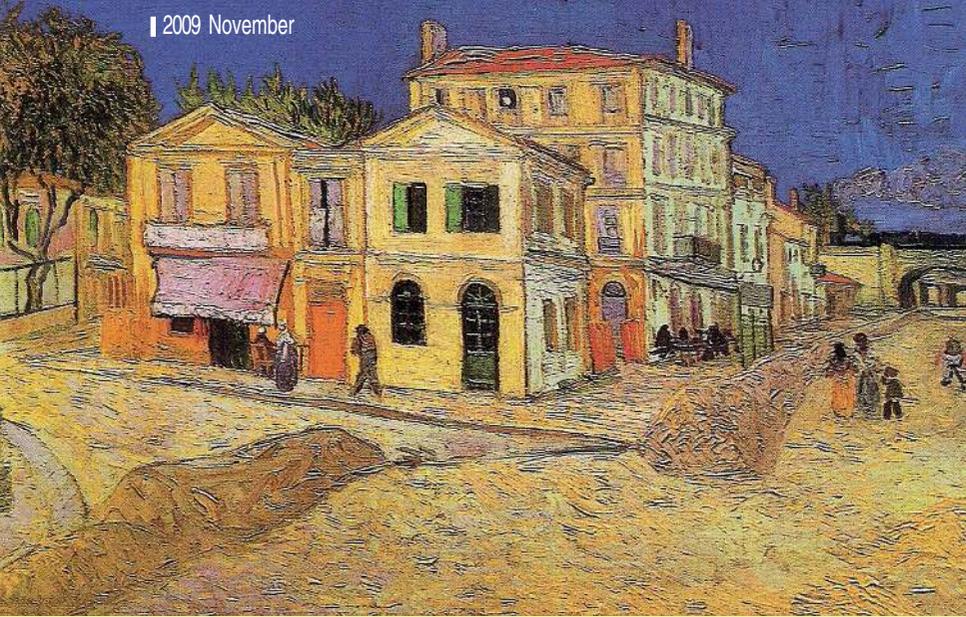
고흐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한 아틀리에 노란 집을 그린

작품이 〈노란 집〉이다. 이 작품은 고흐의 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파란 하늘 아래 노란 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집이 거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카페 야외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으며 멀리 기차가 연기를 뿜고 달려가고 있다.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화면을 이등분한 이 작품은 밝은 햇살 아래 시골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전경이 잘 나타나 있다.

고흐는 노란 집에서 고갱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겠다는 꿈이 산산 조각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 고흐는 절망감에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노란 집에서 불화를 겪고 있었지만 병으로 고통 받는 고흐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고갱은 밤 산책을 즐겼다. 그의 외출을 의심하고 있었던 고흐는 고갱을 미행한다. 그 일로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고 고흐는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 매춘부에게 주었다. 고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비록 고흐는 노란 집에서 반년도 채 살지 못했지만 그곳은 고흐에게 단순하게 작업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노란 집은 고흐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정, 행복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던 곳이었다. 고흐는 아틀리에를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그에게 노란색은 현실과 다른 이상 세계를 창조함을 의미한다.



- | | | |
|---|---|---|
| 1 | 2 | 1 <노란 집> 1888년, 캔버스에 유채, 72×92,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소장 |
| | | 2 <열 두 송이의 해바라기> 1888년, 캔버스에 유채, 91×72, 뮌헨 눈에 피나코텍 소장 |
| 3 | | 3 <별이 빛나는 밤> 1889년, 캔버스에 유채, 73×92,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 |

고흐의 노란색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해바라기>다. 해바라기는 다른 어떤 작품보다 고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고흐는 1886년부터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열 두 송이의 해바라기> 이 작품은 그가 온화한 기후와 눈부신 태양이 있는 지중해에 매료되어 아를에 화가들의 공동 작업실 노란 집에 살았을 때 제작한 작품이다. 고흐는 고흐와 함께 쓸 노란 집을 장식하기 위해 해바라기를 그렸다.

이 작품에서 반 고흐는 정확하게 사물의 본질을 추구했다. 섬세하게 그려진 꽃은 무수히 많은 색으로 덧칠해져 있으며 파란색과 녹색바탕 위에 선명한 노란색의 해바라기는 단순히 꽃의 이미지를 넘어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흐는 정신착란으로 생레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지만 그림을 놓을 수가 없었다. 고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자살기도로 들판에 나갈 때 감시인을 동반했지만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이다. 이 작품은 고흐의 중요한 작품으로서 극심한 발작으로 인해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고흐는 1888년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별이 반짝이는 밤이면 나를 꿈꾸게 만든다.' 라고 밝혔는데 그는 정신병원에서 파리에서처럼 밤풍경이라는 주제를 다시 그리게 된다. 정신병원에서 고흐는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자신이 좋아했던 소재를 다시 그렸다. 이 작품은 고흐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자연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아니라 추상을 시도한 작품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색채와 형태를 상상해서 표현했다.



푸른 하늘 위로 두 개의 커다란 소용돌이가 감겨있고 열한 개의 커다란 별들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빛난다. 오렌지색 달은 해와 결합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 아래 지평선을 향해 은하수가 흐른다. 커다란 소용돌이 사이로 밤하늘은 깊은 푸른색이다. 하늘의 풍경은 환상적이지만 그것과 대조적으로 땅위의 풍경은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을은 고흐가 상상으로 만들어 냈다. 마을 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소용돌이치는 하늘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 사이프러스 나무다. 전통적으로 사이프러스 나무는 무덤과 애도를 암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고흐는 '기차를 타고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듯이, 우리는 죽어서 별에 닿게 된다.' 고 했다. 결국 정신병원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한 고흐는 권총으로 자살한다. 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글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했다)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아무 것도 안 떠오르는 'Writer's Block'

작가인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재 글을 쓰다 보면 가끔 하는 경험인데요, '아무 것도 안 떠올라 뭘 써야할지 막막한 상태' 이지요. 그걸 영어로는 'writer's block'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면 저는 일을 멀찌감치 밀쳐놓고는 신문을 펼칩니다. 참 반갑고 고맙게도 할리우드의 스타인 조시 하트넷의 인터뷰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참석하기 위해 <나는 비와 함께 간다 I Come with the Rain>를 들고 해운대를 찾은 것인데요, 제가 번역한 <진주만 Pearl Harbor>의 주인공이기도 해서 그의 기사가 진심으로 반가웠고, 이번 칼럼의 구세주여서 그가 고맙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고 묻자 그는 1963년 작품인 <8과 1/2>을 꼽았더군요.

조시 하트넷이 좋아하는 영화는 <8과 1/2>

<8과 1/2>은 이탈리아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자전적 영화입니다. 1963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길>과 <달콤한 인생>을 감독한 거장의 걸작이지요. 극중 영화 감독인 귀도는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를 맞습니다. 또한 그는 아무 것도 안 떠올라 머릿속이 새하얀 상태인 director's block에 빠집니다. 그것도 그의 최근작이 대성공을 거둔 다음 맞이한 위기여서 그로서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런 그가 굴곡졌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곤 '매순간마다 성실하게 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남은 생의 첫 날

성실한 삶의 교훈을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뷰티 American Beauty>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이 영화에서 사자(死者)가 된 주인공이 내레이터로 등장하여 관객에게 이런 회두를 던지지요. "오늘은 당신에게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후회란 항상 뒤늦게 찾아온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회적으로 상징하는 명대사이지요. 영화에서 주인공인 레스터(케빈 스페이시 분)도 중년의 위기를 느낍니다. 능력을 알아보는 상사의 빈정거림 때문에 지치고, 근심걱정을 달고 사는 아내의 양갈짐 때문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분고분하던 과거와는 달리 아내와 상사를 호전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궁지에 몰이붙이려고 상대의 비밀을 들추어내어 헐뜯기도 합니다. <8과 1/2>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누구도 다치지 않게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Happiness consists of being able to tell the truth without hurting anyone)'임을 그 또한 모르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누구도 다치지 않게끔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

이제 레스터는 자신에게 그릇된 죄면을 겁니다. 짓눌러왔던 욕망을 해갈하다보면 중년의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일탈적 행위를 통해 욕망을 해갈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등학교생인 딸의 친구이자 치어리더로 활동하는 안젤라에게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젤라는 틈만 나면 '경험'이 많으며 공공연히 자랑해 왔는데요, 안젤라와 둘만 있게 된 순간 레스터는 뜻밖의 고백을 듣습니다. "저

실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둔중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레스터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곤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사진을 어루만져보며 자신과 아내와 딸에게 소홀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레스터는 ‘시간을 쪼먹는 후회는 곧 현재를 괴롭히는 과거(Regrets are a waste of time. They're the past crippling you in the present)’라는 교훈에 가까스로 의지하여 힘을 냅니다. 그리곤 남은 생은 더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 그 다음의 설정은 충격적인 스포일러입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가려둡니다.

뮤지컬 영화로 새롭게 탄생하는 <8과 1/2>

극영화 <8과 1/2>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다섯 개 부문에서 토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뮤지컬을 텍스트로 새 뮤지컬 영화가 탄생합니다. 미국에서 올 성탄절 때 개봉하여 2010년 아카데미상을 겨냥하게 될 이 뮤지컬 영화의 제목은 ‘나인(Nine)’입니다. 참 반갑게도 <시카고 Chicago>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롭 마셜이 감독했습니다. 반갑다고 한 이유는 <시카고>를 제가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톱스타들의 매혹적 연기 대결

롭 마셜이 <게이샤의 추억> 이후에 만든 야심작이어서 무척 궁금한데요, 출연진과 제작진의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디 아워스 The Hours>의 니콜 키드만,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Vick 출연 Christina Barcelona>의 페넬로페 크루즈, <테어 윌 비 블러드 There Will Be Blood>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 <라 비앙 로즈 La Mome>의 마리온 꼬펠라르, <셰익스피어 인 러브 Shakespeare in Love>의 주디 덴치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톱스타들이지요.

할리우드 최고 제작진의 야심작

<나인>의 감독은 <시카고>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플레이어 The Player>의 각본을 쓴 마이클 톨킨, <게이샤의 추억 Memoirs of Geisha>을 촬영한 디온 비비, <시카고>의 미술을 담당할 고든 심,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The Lord of the Rings : THE Return of the King>의 메이크업을 담당할 피터 킹 그리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제작한 허비 와인스타인도 <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일류 스태프이지요.

2010년 아카데미에서 <나인>이 과연 몇 개의 상을 수상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나인>에도 ‘아메리칸 뷰티’를 떠올리게 할 명대사가 나옵니다. 젊었을 때 귀도가 사랑했던 여인의 절규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요(Live today as if it may become your last).”



숲의 지배자 황조롱이



먹이를 잡기 위해 작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황조롱이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시골에서 사랑받는 텃새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 살았던 나는 새와 접할 기회가 참 많았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할 때 조금만 샅길로 빠지면 많은 새들의 둥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묘소가 있는 곳의 경사진 곳에는 알락할미새와 검은 딱새의 둥지가 있었고 다래덩굴이 우거진 곳에는 휘파람새나 오목눈이의 둥지가 있었으며 강가를 가면 수많은 종달새와 꼬마물떼새들의 둥지가 지천으로 있었다. 또한 숲으로 들어가면 매 종류들의 둥지도 많았는데 가파른 바위 위에는 수리부엉이의 둥지가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 둥지 안에 있는 멧토끼 또는 꿩을 부엉이 어미가 없을 때 살그머니 꺼내 오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높은 나무 위에 있는 매의 둥지에서 어린 새끼를 꺼내다가 집에서 기르는 것이었다. 이 새를 잘 길들여 놓으면 성장한 후에 가끔 멧비둘기나 작은 새를 잡아 와서 손쉽게 맛있는 새고기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둥지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황조롱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는데 동네 입구에서 만난 어른 한 분에게 들켜서 상당히 혼이 난 적이 있다. 옛 어른들은 가을

곡식이 익어갈 때, 황조롱이가 날아다니면서 곡식을 먹는 들쥐나 참새를 잡아먹는다고 하여 절대로 잡지 못하게 하였다. 자기네 논, 밭 근처로 황조롱이가 날아오면 일단 쥐와 참새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니, 황조롱이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 황조롱이를 잡아서 집으로 가지고 왔으니 시골 어른신이 노하시는 것은 당연하였다.

황조롱이의 생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조롱이는 몸길이가 30cm 정도이며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사냥을 하는 매우 빠른 새로 사냥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예전에는 숲의 높은 나무나 절벽의 바위틈에 둥지를 만들고 번식을 하던 새였으나 요즘에는 도시의 높은 건물 틈이나 아파트의 창문 밖에 있는 화분 위에서 심심치 않게 번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텃새가 되었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의 LG 트윈타워에서 주기적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 사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어 사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 했으며 경기도 고양시 흰돌마을 서암아파트, 고양시 행신동의 동신아파트에서 번식을 하여 조류학자들

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황조롱이는 시골에서는 해충과 들쥐를 잡아먹어 농사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도시에서는 집쥐를 구제하는 '환경지킴이'로 농촌과 도시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야생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둥지를 직접 만들지 않으며 주로 까치가 사용하던 흰 둥지나 말뚝가리의 둥지, 새매의 낡은 둥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거의 완성된 까치의 둥지를 빼앗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인지 번식이 끝나서 황조롱이가 까치들이 모여 있는 숲에 나타나면 주변의 까치들이 모두 모여 황조롱이를 공격하여 자신들의 영역 밖으로 악착같이 쫓아내는가 하면 심지어 둥지를 벗어난지 얼마 안 되는 황조롱이의 어린 새끼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다보니 까치들과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

황조롱이는 '매' 과에 속하는 새로 매우 날쌔고, 공격적이며,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다가 땅의 먹이를 확인하곤 정확하게 잡는 사냥의 명수이다. 가끔 눈이나 발 등의 상공에서 날개를 짝 펴고 움직이지 않고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새의 모양을 보고 일부 지방에서는 '바람개비매' 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조롱이도 다른 매와 마찬가지로 부리 끝은 날카롭게 꼬부라져 있고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날카로우며 들판의 멧새같이 작은 새와 들쥐 등을 공중에서 보기만 하면, 정확히 하강하여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감을 움켜쥐는다. 잡은 먹이는 날카로운 발톱의 일격에 목숨을 잃게 되며 이런 다음 나무나 바위 위, 또는 땅바닥 같은 곳에서 부리로 찢어 먹는다.

한배의 산란수는 4~6개이며, 알은 흰색 바탕에 어두운 적갈색 무늬와 엷은 회자색 무늬가 있을 때도 있으며, 어미가 알을 품기 시작한 후 27~29일 만에 부화되고 약 한 달 정도 후에는 어미와 크기가 같아지면서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난 어린 새들은 몇 개월 동안 어미와 같이 생활을 하며 먹이를 얻어먹으며 사냥술도 배우고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운다.

성장 후에는 단독 또는 암수가 생활하며 전신, 전주, 나무 위, 건물 위에 앉기도 한다. 먹이가 되는 새는 날아다니는 것보다 앉았다 날아오를 때 잡으며, 먹이를 삼킨 것 중에 소화가 되지 않은 뼈와 깃털은 토해 낸다.

황조롱이의 실수

며칠 전 정비상황실 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매 한 마리가 사무실 뒤에서 잘 날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붙잡아 놓았다고 하였다. 일단 그 새를 라면 상자 안에다 넣어 놓고 열어 보지 말라고 당부 하였다. 대부분의 새들은 내부를 어둡게 해놓으면 안정을



황조롱이의 매서운 눈과 부리



먹이를 잡기 위해서 구조물 위에 앉아 있는 황조롱이



까치의 집단 공격을 받고 있는 어린 황조롱이



둥지를 떠난 황조롱이가 풀밭에 앉아 있다



풀밭에서 메뚜기를 잡는 황조롱이



흙 위에 올라와 있는 귀뚜라미는 황조롱이의 좋은 먹이다

취하며 며칠이 지나도 원기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비상황실을 찾았다. 라면 상자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이는 새는 황조롱이었다. 눈이 매우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하루를 굶었음에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날카로운 발톱과 예리한 부리 그리고 부리부리 빛나는 눈에서 맹금류의 위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황조롱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건물 밖으로 나와서 라면상자 속의 황조롱이를 가죽장갑을 낀 두 손으로 조심스레 새를 꺼냈다. 이리저리 다친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중에 갑자기 새가 날개를 펴덕이며 날아갔다. 처음에는 잘 날지 못하는 것 같더니 이내 정상적인 날갯짓을 하며 멀리 날아갔다.

아마 빠른 속도로 사냥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서 벽에 부딪치거나 숲이 비친 유리창에 부딪친 후 머리에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어두운 곳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온전히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다.

천하의 사냥 선수도 어쩌다 한 번 실수를 할 때가 있다. 특히 숲 주변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에 다른 새들처럼 부딪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사냥에 집착을 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가 보다.

황조롱이의 퇴치

황조롱이는 먹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지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주로에서는 이 새의

처리 때문에 매우 신경이 쓰인다. 활주로 주변의 숲속 나무에 앉아 있다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 위로 날아와서는 한동안 먹이 사냥을 하는데 항공기가 이륙을 할 때 많은 방해가 된다. 천연기념물(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8-8호)로 보호받고 있는 새라 쉽게 엽총으로 쏘아서 포획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활주로에서 황조롱이가 주로 사냥하는 것은 작은 쥐와 나방 그리고 덩치가 큰 메뚜기들이다. 가끔 대나무 숲 부근에서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멧비둘기를 사냥하여 숲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활주로에서 작은 새를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 활주로 주변의 잔디밭에서는 공중에 황조롱이가 먹이 사냥을 위해 정지비행을 하고 있으면 작은 새들이 미리 보고 일찌감치 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활주로 잔디면 주변에는 쥐를 비롯한 작은 포유류들이 살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메뚜기목의 곤충들도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메뚜기들이 가을이 되면 활주로 위로 올라와서 돌아다니곤 하는데 황조롱이는 이런 노출된 지역에 있는 곤충들 사냥하기를 좋아한다.

조류감시 병사의 황조롱이 출현 통보를 받고 황급히 달려가는 기동 BAT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황조롱이를 적절하게 보호도 하면서 비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퇴치를 해야 하는 조류퇴치반 요원들이 쏘는 공포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린다. 황조롱이야 얼른 활주로 밖으로 나가렴...⁴¹

항공소년단



♣ 한국항공소년단은

기존 청소년단체 활동과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장병 1인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 명남빌딩 2층 02)953-7543/www.yfk.or.kr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하루는 칭기즈칸이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활과 호살을 든 부하들이 팔뚝에 매를 얹은 칭기즈칸의 뒤를 따랐습니다. 칭기즈칸의 매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호살보다 정확하고 빠른 무기이자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포획물을 건지지 못하자 칭기즈칸은 실망한 채 막사로 돌아왔다가, 다시 홀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사냥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피곤하고 목이 탔지만 가뭄으로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매를 내려놓고 늘 지니고 다니던 은잔을 꺼내 물을 받았습니니다. 물줄기가 작아 잔에 물이 찰 때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니다. 그런데 그가 물을 입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매가 날아올라 그의 손에 들린 은잔을 채어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니다. 칭기즈칸은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던 짐승이었기에 어마저도 목이 마른가 생각하고 말았습니니다. 그는 잔을 집어 들어 흠을 털어내고는 다시 물을 받았습니니다.



잔이 반쯤 찼을까, 매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달려들어 물을 쏟았습니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짐승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매의 방자함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니다. 검을 빼어든 칭기즈칸은 한쪽 눈으로는 샘물을, 다른 쪽 눈으로는 매를 지켜보며 다시 잔이 차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니다. 그리고 물을 막 마시려는 순간 매가 날아올라 그에게 달려들자 단칼에 매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리니, 흐르던 물줄기가 끊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니다.

마실 물을 찾으려고 벼랑을 기어오른 칭기즈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니다. 물웅덩이 근방에 독하기로 소문난 독사가 죽어 있었던 것이습니니다. 물을 마셨다면 그도 죽었을 터였습니니다. 주인을 살리려고 잔을 떨어뜨렸던 죽은 매를 옆구리에 끼고 막사로 돌아온 칭기즈칸은 금으로 그 형상을 뜨게 하고 한쪽 날개에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니다.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분노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여 때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길에 발을 내딛도록 만듭니다. 분노에 휘말리게 되면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순간의 분노로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않는 성숙한 태도를 갖추어야겠습니니다.



가을 억새밭에서 詩를 줍다

글 최춘희 | 창공클럽 회원/시인

우연히 티브이를 보다가 화면 가득히 넘실대는 은빛 바다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을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가슴 확 트이는 풍경이 제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그날 하루 종일 집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첫사랑 애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사람처럼 안절부절 애태우며 속을 끓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억새축제가 한창인 하늘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잔뜩 찌푸린 흐린 날씨와 산처럼 쌓인 잡다한 일상의 일들을 땡개치고 일편단심,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반백의 애인을 만나러 갔지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렸습니다. 까마득한 나무계단이 천상의 사당다리처럼 아득히 하늘 끝에서 굽이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늘하고 청량한 하늘아래 꿈의 풍경인 듯 느릿느릿 하얀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더군요. 한 계단씩 오를 적마다 조금씩 지상의 풍경들이 지워지고 갈색의 나무 목책 사이로 이름 모를 새 울음소리와 보랏빛 썩부쟁이가 고개 내밀고 반겨주었습니다. 잡초들 사이사이 노란 산국과 금불초, 마타리, 청초한 흰 구절초, 사위질빵, 진분홍 부처꽃 등의 많은 들꽃들이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반쯤 올라갔을 때 깜깜해지면서 천둥이 치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가을의 옛 애인을 찾아 나선 저에게 휘방꾼이 나타난 것이지요. 사정없이 비는 쏟아졌지만 그래도 제 발걸음을 잡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어떤 사소한 악조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비를 흠뻑 맞으며 드디어 정상에 섰을 때 와락, 오래도록 그곳에서 오직 저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드넓은 가슴을 벌려 안아 주었습니다.

한껏 옷자란 하늘공원의 억새밭은 불어오는 바람 따라 장대한 자연의 심포니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나들이객들이 가을의 억새들처럼 자연의 악기로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더군요. 이제 알에서 갓 깨어난 병아리 같은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의 구령소리에 맞춰 놀고 있는 장면도 참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역시 축제란 많은 이들이 모여 흥겹게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신이 주신 한 순간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이란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직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여기저기 돛자리를 깔고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끼리, 친구끼리 준비해온 음식과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냥 들뜨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토록 보고 싶어 찾아간 제 애인을 하마터면 깜박 잊을 뻔 했지요.

은발을 멋지게 날리며 그가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새털처럼 가벼워 세월에 지치고 남루해진 무거운 몸과 마음을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왈츠를 추듯이 무아지경의 스텝을 밟아 나갔습니다. 지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따스하고 다정한 위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찢긴 흉터들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더군요. 가만히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으니 스크르 잠이 찾아와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상에 두고 온 버릴 수 없는 손때 묻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현실의 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을 딛고 있는 두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면서도 언제까지 그 곳에만 머물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오래전 본 '아비정전' 이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우울하게 내뱉던 독백이 떠오릅니다. "발 없는 새는 지상에 내려올 수 없고 죽어서야 비로소 내려오는 거라던..." 허무하고 공

허한 목소리가 지금도 가슴 한 구석을 아리게 하는군요.

무덤고 지루하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가을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처 손 써볼 사이도 없이 갑작스런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살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간 스스로가 부른 자연재앙이지요.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다시 푸르고 무너진 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 삶을 꾸려 갑니다. 꿈꾸는 자에게만 미래는 늘 열려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많은 것을 주지만 감사함을 모르고 교만할 때 엄청난 파괴력으로 경고를 합니다. 우리들 인간의 헛된 욕심 때문에 자연이 주는 무상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광대무변의 푸른 바다에서 한 마리 빛나는 고래를 잡아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고 있습니다. 날마다 꾸는 헛되고 헛된 꿈이지만 그런 꿈이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철딱서니 없는 몽상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행복합니다. 하늘공원에서 오래전 헤어진 옛 애인을 만나고 발걸음 가볍게 돌아옵니다. 가을 억새밭에서 시를 읊는 오늘입니다. ㉔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만화로 보는 공군 역사상징인물3〉에 ‘빨간 마후라의 표상 김영환 장군 (하)’ 편을 가장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공비들이 문화유적지에 숨어있기에 문화유적을 파괴하지 않았던 김영환 장군의 진정한 애국정신과 빨간마후라를 남기고 실종된 고인의 안타까운 삶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호에는 공군에 입대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절차를 거쳐 군복무하게 되는지, 군복무하면서 어떤 점들이 타군과 차별화되는지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공군의 첨단정보화, 기술발전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획였습니다. 군인 홍보잡지인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전국민의 홍보물이 되었기에 더욱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꼭 공군의 에어쇼나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정말 멋졌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조경애 -

#2

〈Beauty 바이러스〉에 ‘면도와 제모’의 글을 보고 턱수염이 많은 1인으로서 면도를 자주 하지만 면도에 순서까지 있는 줄은 몰랐으며 이 글을 보

고 난 후 그 순서대로 면도하여 피부에 손상가지 않게 자기관리를 할 줄 아는 용모 단정한 공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신종플루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 실렸으면 합니다.

- 충남 서산시 흥찬의 -

#3

〈World-Wide Vision〉에 실린 ‘공중 재급유(Refueling)’ 기사를 보고 공중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었는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공군의 원피스 스타일의 조종복이 멋있습니다. 전투복은 타군과 비슷하고 그런데 구두에 캐주얼 복 같은 옷은 언제 입는지 궁금합니다. 각 제복의 명칭과 언제 입는지 알려주세요. 빨간 마후라를 걸칠 때가 공군은 가장 멋있습니다.

- 서울시 송파구 손주연 -

#4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책마을〉에 ‘나를 다스리는 목직 한 침묵/헨리 데이빗 소로우’였습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책읽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더없이 유익한 정보

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리길 늘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습니다. 매호마다 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잡지들은 그냥 가볍게 읽거나 단지 감동 위주의 글들이 많은데 월간 「공군」에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며 공부를 해 소장 가치가 높을 뿐더러 아이들에게 읽게 하기도 아주 좋은 잡지란 생각이 듭니다.

- 인천시 연수구 김종필 -

#5

〈기획특집1〉에 ‘제주 국제 관악제에 참가한 공군 군악대’라는 제목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공군 군악대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진으로 보니 흥미롭고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호에는 취재 대상을 공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훈련 받는 일상들을 취재, 인터뷰 등을 해서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실어 주세요. 그리고 신종플루가 유행이라던데 조심하세요!

- 전남 순천시 윤정자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11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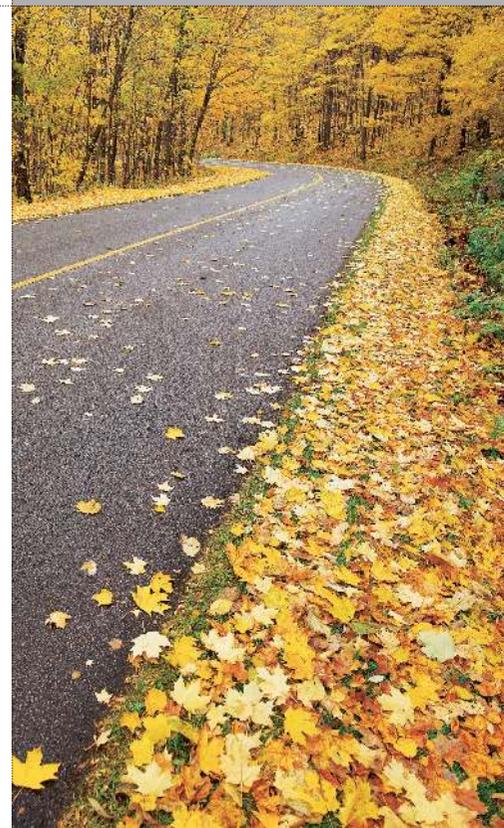
.....
.....

11월호 퀴즈정답

1.

2.

3.



AIR POWER

대한민국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 UCC 공모전

60

공군력 60주년을 60인이 UCC에 담는다

IN^[시] UCC

대한민국 공군과 **airfm**이 함께하는 UCC 공모전

1st UCC CONTEST

- AIR POWER는 공군력을, 60은 60주년을, 60 IN은 60인을, IN UCC는 UCC에 담는다는 상징함
- AIR POWER는 공군력을, 60은 60주년을, 60 IN은 60인을, IN UCC는 UCC에 담는다는 상징함
- AIR POWER는 공군력을, 60은 60주년을, 60 IN은 60인을, IN UCC는 UCC에 담는다는 상징함
- AIR POWER는 공군력을, 60은 60주년을, 60 IN은 60인을, IN UCC는 UCC에 담는다는 상징함
- AIR POWER는 공군력을, 60은 60주년을, 60 IN은 60인을, IN UCC는 UCC에 담는다는 상징함



www.airpower60.co.kr - 접수

문의 → airfeel@airforce.mil.kr

주제
Power of Air Force

대한민국 공군과 **airfm**이 함께하는
창군 60주년 기념 UCC 공모전

부문
단편 / 광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공군", "Power of Air Force"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푸짐한 상품과 초청이벤트로 후원하겠습니다.



총상금 및 상품
6,000,000원 상당



대 상 2,000,000원
각 부문별



최우수 1,000,000원 상당
우 수 500,000원 상당

신청자 중 60명 선정 Seoul
ADEX 2009 입장권 증정

접수방법 ① www.airpower60.co.kr ② **airfm** 닷 UCC 이벤트 페이지
접수부문 ① 단편 : 30초 이상 ② 광고 : 30초 이하

10/26 - 11/15

대한민국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 UCC 공모전

ROKAF

공군력 60주년을 60인이 UCC에 담는다

UCC CONTEST

대한민국 공군과 **airfm**이 함께하는 UCC 공모전